

Weekly

공감

No.57
2010.04.21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기획특집 '3D 韓流'로 제2의 IT 신화를!

한국 '핵안보 기수'로 나섰다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 서울 개최



침묵의 귀환…
대한민국의 가슴에 묻다





3월 26일 서해에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함미 부분이 4월 15일 인양됐다.
지난 20일 동안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기다려온 국민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젊은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것이다.

바다에서 하늘로 …



이창기(40) 원사
경기 양평. 국수고.
90년 임관. 처, 1남



최한권(38) 상사
충남 홍성. 홍성고.
92년 임관. 모, 처, 1녀



남기훈(36) 상사
충북 청주. 심례고.
94년 임관. 처, 3남



김태석(37) 상사
경기 성남. 성남서고.
93년 임관. 처, 3녀



문규석(36) 상사
전남 구례. 금정고.
94년 임관. 처, 2녀



김경수(34) 중사
충남 서천. 인천북공고.
95년 임관. 처, 1남 1녀



안경환(33) 중사
경북 예천. 인천제일상고.
96년 임관. 부, 모, 여동생



김종헌(34) 중사
경남 양산. 장안종합고. 96년
임관. 처, 여동생, 남동생, 1남



최정환(32) 중사
충북 충주. 용산고.
96년 임관. 처, 1녀



민평기(34) 중사
충남 부여. 부여고.
97년 임관. 부, 모, 2형



정종율(32) 중사
전남 곡성. 운산기계공고.
00년 임관. 처, 1남



박경수(29) 중사
경기 수원. 삼일공고.
01년 임관. 처, 1녀



강준(29) 중사
전남 고흥. 창원전문대.
01년 임관. 처



박석원(28) 중사
충남 천안. 천안중앙고.
02년 임관. 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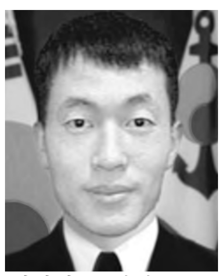
신선준(29) 중사
울산. 울산공고.
02년 임관. 부, 누나



임재엽(26) 중사
대전. 충남기계공고.
02년 임관. 부, 모, 누나, 형



손수민(25) 하사
울산. 무룡고.
05년 임관. 조모, 부, 모, 여동생



심영빈(26) 하사
강원 동해. 광희고.
05년 임관. 부, 모, 남동생



조정규(25) 하사
경남 창원. 창원공고.
05년 임관. 부, 모, 형



방일민(24) 하사
서울. 김포대.
07년 임관. 부, 모, 남동생



조진영(23) 하사
부산. 경구고.
08년 임관. 부



차균석(24) 하사
제주 서귀포. 남주고.
08년 임관. 부, 모, 남동생



박보람(24) 하사
충남 아산. 평택기계공고.
08년 임관. 부, 모, 남동생



문영욱(23) 하사
경북 상주. 동서대.
08년 임관. 이모



이상준(20) 하사
부산. 건국고.
08년 임관. 부, 모, 2누나

47人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장진선(22) 하사
강원 동해. 광희고.
08년 임관. 부, 모, 여동생



서승원(21) 하사
서울. 효성고.
09년 임관. 부, 모



박성균(21) 하사
경남 창원. 창원공고.
09년 임관. 부, 모, 남동생



서대호(21) 하사
경남 의령. 경남대.
09년 임관. 조모, 부, 모, 형



김동진(19) 하사
부산. 부산디지털고.
09년 임관. 모



이상희(21) 병장
서울. 혜전대. 08년 입대.
부, 모, 여동생, 2남동생



이용상(22) 병장
경기 고양. 숭실대.
08년 입대. 부, 모, 2남동생



이재민(22) 병장
경남 진주. 진주보건대.
08년 입대. 조모, 부, 모, 여동생



이상민(22) 병장
전남 순천. 천안대.
08년 입대. 부, 남동생



이상민(21) 병장
충남 공주. 청양대.
08년 입대. 부, 모, 3누나



강현구(21) 병장
서울. 인하공전.
08년 입대. 부, 모, 여동생



정범구(22) 상병
경기 수원. 강원대.
08년 입대. 모



김선명(21) 상병
경북 성주. 금오공고.
09년 입대. 부, 여동생, 남동생



박정훈(22) 상병
서울. 한국폴리텍대.
09년 입대. 부, 모, 남동생



안동엽(22) 상병
서울. 경기대.
09년 입대. 부, 모



김선호(20) 상병
충남 천안. 천안정보산업고.
09년 입대. 부, 모, 누나



강태민(21) 일병
인천. 홍익대.
09년 입대. 부, 모, 여동생



나현민(20) 일병
서울.광성고.
09년 입대. 부, 모, 형



한주호(53) 준위
서울. 수도공고.
75년 임관. 처, 1남1녀



조지훈(20) 일병
서울. 인하공전
09년 입대. 부, 모, 여동생



정태준(20) 이병
부산. 동의과학대.
09년 입대. 부, 모, 여동생



장철희(19) 이병
서울. 동의과학대
10년 입대. 부, 모, 여동생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에 사이버 추모관이 개설돼 있습니다.

Weekly
2010.04.21
No.57(통권 158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천안함 함미
안은 검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20일 전 색색의 꿈, 희망, 포부,
기다림을 품고 힘차게 출항한
용사들은 말 없는 넋으로 돌아와
온 국민의 가슴속에 묻혔다.
〈사진 제공 · 국방일보〉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4.2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3D 韓流 21세기 IT 신화를 연다

전 세계에 3D 붐을 일으킨 영화 〈아바타〉의 배경은 행성 '판도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 밑바닥에는 판도라가 미처 꺼내지 못한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는 정보기술(IT) 산업.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오감만족'의 삼총사 '콘텐츠·미디어·3D'가 대한민국 미래의 황금알을 낳을 신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제2의 IT 신화. 그 희망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GONGGAM 공감 라운지 KOREA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56호(4월 14일자) 기획특집 ‘국제기구 이끄는 대한민국 녹색 리더십’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린 시절 미국의 원조물자였던 빵과 우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우리의 발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경험을 살려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길 기대합니다.”_이미정

“정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장래 꿈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건데, 〈Weekly 공감〉에서 국제기구의 정의와 특성, 종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도움이 됐습니다. 포털사이트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잘 정리돼 있는 건 못 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여러모로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였습니다.”_pennylane

“‘국제기구서 활약하는 글로벌 코리언들’을 통해 각종 국제기구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보면서 한국의 위대함과 세계 속의 우리 위상을 엿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해야 할 일도 많음을 느끼면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위상과 국격이 더 높아지도록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 봅니다.”_우정렬

“국제기구 참여의 길 확대됐으면”

“국제적인 활동에 좀 더 많이 참여해 국가 간 교류를 증대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효과를 높여 한국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국제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갖고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줬으면 합니다.”_김성철

56호 포커스 ‘콘텐츠 분야 일자리 8만 개 창출’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청년들의 고용 창출인데, 정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하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콘텐츠와 미디어, 3D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경상수지의 개선 효과를 거둬 이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분발해 결국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대되는 연쇄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_우도형

56호 이 사람 ‘노숙인에게 인문학 강의하는 최준영 교수’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기사였습니다. 노숙인들이 사회의 낙오자가 아니라 표현하는 법이 조금 서투른 우리 이웃이란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인문학이 노숙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_이하나





알립니다

“날씨가 돈 되는 세상”… 정보 활용 사례 공모

기상청은 제5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을 공모한다. 기상청이 주최하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기상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기상·환경 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매년 열린다.

응모 자격 | 기상정보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 연구소 등 단체 응모 가능
접수 방법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제출서류에 맞춰 방문 또는 우편(방문접수는 5월 31일까지며, 우편접수는 5월 28일 소인까지 인정)
공모 분야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해 이윤 창출에 크게 기여한 사례 △기상정보를 활용해 회사경영을 혁신하거나 재해를 슬기롭게 예방·극복한 사례 △수입에 의존하던 기상장비 국산화로 국내외 기상장비 산업 활성화에 공로가 큰 사례 △개인이 기상정보 활용으로 재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 사례 등
심사 기준 | 경제성, 창의성, 합리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심사하며, 1차 심사 후 2차 종합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시상 내역 |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2명을 선정. 대상 수상자의 경우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최고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여
시상자 발표 | 6월 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Tel **02-736-7365 gisang@kmipa.or.kr, www.kmipa.or.kr**

책과 독서를 소재로 한 사진을 공모합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책과 독서를 소재로 ‘손안애서(愛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책을 언제나 손안에 두고 사랑하며 읽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수상작은 9월 이후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 등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 | 6월 30일(수)까지
응모 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
공모 내용 | 책 읽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나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미지를 묘사한 작품
작품 규격 | 프린트된 컬러 또는 흑백사진(8″× 10″)
출품 수량 | 2008년 3월 이후 촬영 작품으로 1인 3점 이하
시상 내역 |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백만원을 포함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백70만원
수상작 발표 | 2010년 7월 30일(금)
출품 방법 | 사진 작품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내려받기)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 (157-857)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7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진흥팀 Tel **02-2669-0745 read-kpec.or.kr**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4월 2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2. 나라의 땅.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OO 대장정에 참가하기로 했다.”
4.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궤도를 도는 행성. 환경생태계의 파괴로 위기를 맞고 있음. 오는 4월 22일은 이것의 날. 이것의 나이는 약 46억 살.
6. 숨을 짧은 시간 동안 몇 차례 나누어 들이마신 뒤 이를 큰 소리와 함께 갑자기 코로 숨을 한꺼번에 내쉬는 신체반응. 에취~!
8. 증권시장에서 개별 주식 가격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올라간 경우.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신나는 일이죠. O종O라고도 합니다.
9. 달빛 따위가 몹시 밝은 모양. 시원스럽게 솟아 있는 모양.

세 로

1.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유형 OOO, 무형 OOO, 민속 OOO, 천연기념물, 명승지, 사적 등.
3. 땅.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제목이기도 하죠.
5. 조그맣게 차린 가게.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편의점 등에 밀려 동네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7.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중앙 행정기관.
10. 최근 개봉한 〈아바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타이탄〉 등 3D OO의 위력이 대단한가 봅니다. 우리 OO계도 이에 뒤질세라 3D OO 제작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Weekly 공감〉 55호 (4월 7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초계함 **4** 수미 **5** 최선 **7** 마무리 **9** 국제기구
세로 2 계수나무 **3** 함미 **6** 선진국 **7** 마지기 **8** 리더

〈Weekly 공감〉 55호 ‘공감퍼즐’ 당첨자
김용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길
이명주 · 경북 구미시 형곡2동
이미형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이재경 · 인천 남동구 도림동
황순숙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이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지면입니다. 국민들이 호소한 고충이 실사(實査)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국민 고충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국번 없이 1588-1517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 해결사



민원인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칠순의 할머니가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찾아왔다. 할머니는 약 8년 전 어렵사리 집 한 채를 구입했다. 비록 허름한 1층집이지만 수리해서 증축하면 임대 수입으로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1층이 심하게 낡아서 이대로는 증축하기가 힘드니 신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던 중 할머니는 1층 골조를 보강하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다른 건축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공사를 시작했다. 계속 들어가는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내밀다 보니 집이 완공될 무렵에는 빚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불어났다.

파산 지경에 이른 할머니는 결국 집을 팔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였다. 무허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공사계약서도 쓰지 않고 건축비 영수증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바람에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것. 할머니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양도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고, 몇 년 후 이를 알아챈 세무서에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때마침 할머니는 지병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할머니의 고충을 어떻게든 덜어주기 위해 세무서에서 그냥 지나쳤을 법한 내용들을 자기 일처럼 여러 차례 검토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심의위원회는 장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신청인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할머니가 얄팍한 계산속에서 양도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궁지에 몰린 끝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심의위원회도 인정한 것이다.

정리 · 김지영 기자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강창규 대전 중구 목동

1. '김치 소믈리에·막걸리 소믈리에를 아십니까'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아울러 우리 농촌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전도사로 땀 흘리는 소믈리에들이 훈훈한 감동을 주네요. 그들의 노력이 있기에 한국음식이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도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녹색성장의 훌륭한 모델 국가에서 더 나아가 그 리더십을 십분 발휘해 글로벌 녹색혁명을 선봉에서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현주소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의 모범국가로서 앞으로도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행사와 그런 행사의 의의를 소개해주세요.

이정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1. '모두 안전띠 하면 매년 6백명 살린다'를 읽고 안전띠의 중요성을 새삼 깨우쳤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교통문화 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상에 걸맞은 교통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국민 모두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생활화해 다른 나라에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2. '한일 강제합병 1백 년… 이젠 G20 의장국'을 읽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정도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제기구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 누구나 살기 좋은 일등국가로 번창해나가길 바랍니다.
3. 주말이면 아이들과 음악 연주회나 미술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음악이나 미술 작품에 대한 조예가 부족해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듣거나 미술 작품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코너가 생겼으면 합니다.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21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콘텐츠·미디어·3D로 제2의 IT 신화를!'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바로잡습니다

〈Weekly 공감〉 56호(4월 14일자) 35쪽 표 아래에서 8째 줄의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는 '이만기'가 아니라 '전병성(기상청장)' 입니다.

콘텐츠·미디어 산업 주도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주목하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스마트폰과 3D 영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국내 IT 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콘텐츠, 운영체제(OS), 기기의 연계와 개방적인 생태계라는 무선통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그간 수직계열화된 구조 안에서 안주했고, 기기 제조사들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등한시함에 따라 현재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4월 8일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수립한 '콘텐츠·미디어·3D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3D 영화로 대변되는 콘텐츠·미디어·3D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세계 경제는 제조업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감성과 창의력 중심의 소프트 산업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우리가 향후 IT 산업 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분리되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버리고 미래 IT 산업을 주도할 개방형 생태계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과 정부도 그동안 5천만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던 데서 벗어나 그 시야를 50억 글로벌 시장으로 돌려야 한다.

콘텐츠·미디어 산업은 앱스토어 시장의 성장(2009년 42억 달러에서 2013년 2백95억 달러로 확대)과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2009년 1억7천8백만 달러대에서 2013년 6억 달러대로 확대)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3D 산업 역시 3D 영화, 3D TV 및 방송, 3D 영상의료 등 전 산업 분야에서 3D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향후 시장이 급팽창(2010년 1백47억 달러에서 2015년 2천1백67억 달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다.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과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가 필요한 콘텐츠·미디어·3D 산업은 중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청년층(15~29세) 고용 문제는 기존 제조업의 고용 기여도 축소, 서비스 산업의 미숙, 세계적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가장 큰 사회경제적 문제 중 하나가 됐다. 정부도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줄 필요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리는 우리 청년들은 IT, 정보통신과 관련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의 성장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콘텐츠·미디어·3D 산업의 육성은 필요하다.
나아가 고용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실업구제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잘 연결해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분야의 고용도 유발할 수 있는 '창조 확산형'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G



2012 핵안보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한국, 非核化 이니셔티브 첫걸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미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차기 회의의 서울 개최가 결정됐다. 핵 확산 방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도 핵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기꺼이 초대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다. 4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막을 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 · 지역기구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이듬해에 정상급 인사만 50명가량 참석하는 대규모 핵 관련 정상회의를 열게 됐다. 특히 정상급 인사들의 참석 규모만 놓고 본다면 한국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개최지 확정 후 기자회견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핵확산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최상위 안보회의"라며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나고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2차 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이란은 제외됐다. 두 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IAEA 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핵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바라건대 북한이 2011년까지 6자회담을 통해 핵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에 가입해 세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기꺼이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개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1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핵안보정상회의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비핵화 원칙을 점검하기 위해 2년에 한 번 개최하고자 한다. 2차 회의를 한국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뜻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AP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차기 회의 개최가 결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는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데다,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회동, 3차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해 깊숙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온 것도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다소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즉각 '긍정 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두 정상 간의 교감이 이뤄진 뒤 셰르파(Sherpa · 사전교섭대표) 회의에서 각국 의견을 수렴했고 4월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

오바마 대통령 요청에 이 대통령 즉각 '긍정 검토'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 재학 시절부터 꿈꿔오던 이상인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갈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가장 믿을 만한 국가에 맡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칫하면 한 번의 회의로 그칠 수도 있는 회의를 지속한다는 의미 외에도 핵물질 통제를 위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량과 신뢰도가 보장되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높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국이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맡기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봤음을 의미한다."

전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역할, 한층 깊어진 한미 관계,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돈독한 개인적 친분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장소로 선정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맡기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봤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스콧 스나이더 소장도 "한국이 다음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국제적인 안보 이슈와 관련해 한국의 리더십을 과시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NPT 체제 밖에 있는 북한의 현주소와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차기 개최국 선정과 함께 정상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4년 내에 모든 취약 핵물질을 방호토록 하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핵물질 밀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핵 방호를 위한 12개항의 실천방향에도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코뮈니케는 "핵테러는 국제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라며 "우리 정상들은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테러 위협을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전문과 총 12개항으로 구성된 코뮈니케는 또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을 포함해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 및 핵시설을 효과적으로 방호한다"며 "핵물질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 및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임을 재확인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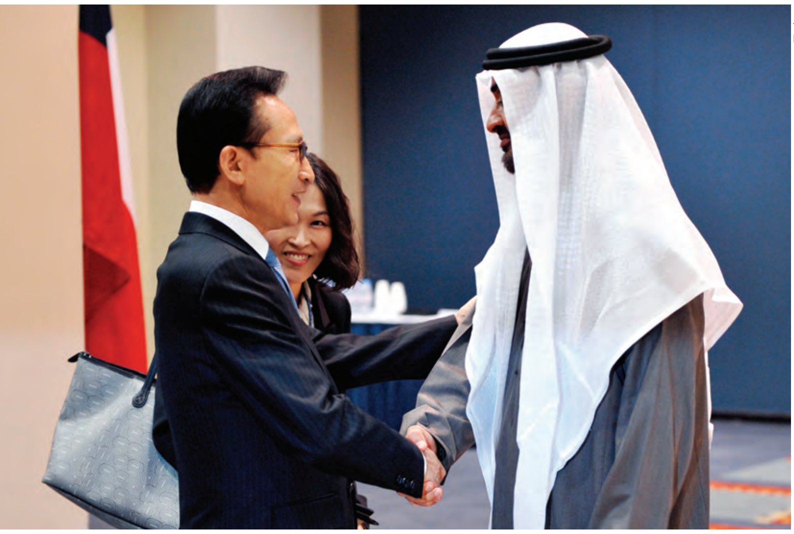
이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뮈니케는 또 △현존하는 핵안보 관련 모든 의무의 전면적인 이행 노력과 △개정 핵물질 방호 협약 및 핵테러 억지협약 지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합의한 4년 내 핵물질 완전 방호라는 목표의 중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핵안보 문제까지 의제를 넓히는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G

글 · 하태원(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한국 核 원전관리 · 核 확산방지 등 높이 평가"

2차 회의 한국 유치 '만장일치' 결정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원자력 발전국가임을 널리 알린 이명박 대통령이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와 환담하고 있다.

4월 13일 저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결정함으로써 한국은 핵안보와 평화적 핵사용에서의 주도권 확보, 국격 제고 등 굵직한 성과들을 함께 거두게 됐다.

이번 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분야 정상회의로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올 11월)에 이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를 경제와 안보 분야의 두 '최고위급 협의체' 의장국으로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친 뒤 "두 회의를 모두 대한민국이 개최하게 돼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결단을 내린 사안이긴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는 이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국제 핵안보 체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증대 계획'에 담긴 구상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구상의 첫 번째로 발표한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개최는 그간 핵안보를 비롯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평화 구상안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주요 국제기구들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의 차기 개최국으로 한국이 결정된 것은 G20 정상회의 유치에 이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하며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한국에 유리한 토양이 조성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를 국제무대의 전면에 등장시켜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해 풀어가려는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핵안보 구상의 하나로 발표한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2011년) 역시 한국의 핵안보 주도권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정부는 GICNT 주도국(공동 상임의장국)인 미국, 러시아와 내년도 총회 개최 문제를 협의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개최를 공식 발표하게 됐다. GICNT는 2006년 7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핵테러 대응능력 제고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7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 중임을 설명하면서 2014년부터 국제사회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의 원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안보 능력과 국제 협력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北核 문제 해결에도 한국에 유리한 토양 조성

이 대통령은 우리의 앞선 정보기술(IT)을 핵·방사성 물질의 관리·통제 체제 구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앞선 IT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원전 사고율 제로에 가동률 93퍼센트란 모범적 원자력 국가로 발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강국의 면모를 적극 홍보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의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면담하고, 원전 건설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47조원 규모의 UAE 원전 수주로 한국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올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의 GICNT 총회, 2012년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은 경제와 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성숙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한달음에 도약할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核 없는 한반도로 가는 큰 진전 이뤘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

"이번 회의는 핵 문제와 관련한 세계 첫 정상회의이자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였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60) 책임연구위원은 4월 12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해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 위원은 경수로기획단 정책자문위원, 국방부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핵안보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번 회의는 명칭부터 일반인에겐 생소하다.

2008년 1월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전 미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공동 명의로 기고한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란 글이 실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글에 크게 공감해 지난해 4월 5일 체코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의 역할과 수효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도 그 선언을 반복했고,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추진한 것이 바로 핵안보정상회의다.



비슷한 시기에 미·러시아 간 새로운 핵군축조약과 미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도 발표됐다.

4월 8일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한 전략무기감축조약은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후속타이다. 종전의 START가 두 나라 간의 전략핵을 2천2백 개 수준으로 감축한 데 이어 새로운 조약은 각각 1천5백50개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월 6일 발표된 NPR에는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도 중시해야 하는 문건이다.

이번 NPR는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선제핵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표방한다. 물론 이란과 북한을 그 대상에서 배제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북한과 이란은 왜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나.

북한과 이란 핵 문제는 이번 회의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다. 지구촌 차원의 핵테러 방지와 핵물질 방호를 의제로 하는 회의인 만큼 특정 국가의 핵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회의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이란, 북한, 시리아 같은 요주의 나라들에 의한 무분별한 핵 확산을 막자는 것이기에 이런 나라들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

북핵 위협과 마주한 한국은 이번 회의나 오바마 행정부의 NPR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나.

핵무기 없는 세상은 모든 나라들이 준수할 때 모두가 '핵평화'라는 결실을 누릴 수 있다. 반칙국가들이 잔존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특히 북한이라는 반칙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북핵 위협을 상쇄하고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와 핵우산은 필수다.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핵평화 이니셔티브에 함몰돼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활발한 대미 핵외교와 전략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G

글 · 김종원(국방일보 기자)

대한민국 신용등급 'A1'으로 상향

무디스, 13년 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전격 조정



동아DB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무디스는 금융위기에도 시장이 차분하게 불안요소에 대응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제야 'IMF 사태'의 후유증을 말끔하게 털어냈다.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한국에게 골칫거리였던 국가신용등급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사(社)는 13년여 만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4월 14일 등급위원회(Rating Committee)를 열어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기관 10개(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와 공기업 7개(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신용등급도 A1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재 A1등급 국가는 이스라엘 등이다.

"천안함 사건에도 국내 시장 차분… 신용도 상향에 기여"

이번 상향 조정은 세계대 신용평가기관(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중에서 처음. 신용도를 21등급으로 산정하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2005년 7월 한국의 신용등급(외환위기 전 AA-)을 A-에서 A로 올린 뒤 아직 등급을 외환위기 전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있다. 24등급 기준인 피치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내린 뒤 2005년 10월 AA-의 한 단계 아래인 A+까지 등급을 상향 조정했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무디스는 한국의 등급 상향 조정의 이유로 빠른 경제회복, 정부의 신속한 대응, 정부의 건전 재정 유지 및 금융기관의 개선 등을 들었다. 경상수지 흑자, 단기 외채 감소와 2천7백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확충 등에 힘입어 대외채무 상환 불능 우려가 크게 낮아진 점도 상향 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무디스는 굳건한 한미동맹 등으로 남북관계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 속도 및 재정건전성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눈에 띄는 탄력성을 보여줬고, 이를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보 정세에 위험 요소가 발생해도 시장이 웬만해선 요동치지 않는다는 점도 신용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손병두 과장은 "천안함 사건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지만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무디스가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등급 향상으로 향후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 및 전망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리스크 감소에 따라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고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 및 채권시장 진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G

글 · 유재영 기자

무디스 신용등급

구분	등급
투자적격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투자부적격	Ba1
	Ba2
	Ba3
	B1
	B2
	B3
	Caa1
	Caa2
	Caa3
	Ca
	C

봄바람 타고 취업문도 활짝

3월 취업 인구 26만7천명… 27개월 만에 최대 증가



동아DB

올들어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경기회복 조짐 등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올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올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7천명으로 증가하여 2007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에 힘입어 민간 부문 취업자 수도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 규모도 확대됐다. 민간 부문(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제외) 취업자는 2009년 12월 16만7천명이 감소하고 올 들어 1월에도 1만1천명이 감소한 뒤 2월 14만명, 3월 19만2천명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어업이 18만8천명 감소한 반면 비농림어업은 보건과 사회복지(12만명), 제조업(11만명), 공공행정(7만5천명)을 중심으로 45만6천명이 늘어났다.

올 1, 2월 일시적 요인으로 급등했던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고 고용률도 개선되는 등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도 이어졌다. 고용률은 57.8퍼센트로 전년 동월 대비 0.1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계절조정 고용률은 58.5 퍼센트로 전월 대비 0.2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이던 1, 2월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실업률도 하향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3월 실업자는 1백만5천명으로 2월(1백16만9천명)에 비해 16만4천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4.1퍼센트로 2월에 비해 0.8 퍼센트 포인트 낮아졌다. 청년실업률도 9.0퍼센트로 2월에 비해 1.0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조성중 사무관은 "고용 여건은 아직 어렵지만 고용회복 속도는 같은 기간 중 미국과 일본의 실업자 증감과 비교해 빠른 수준"이라며 "4월 취업자 수는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실업률은 3퍼센트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G

글 · 박경아 기자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2천2백명 신규 고용

해외 원전 수주, 국내 원전건설 확대 등 '원전 르네상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이 절실해진 가운데 올해 원자력 관련 8개 공공기관에서 2천2백46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기획재정부가 4월 15일 발표한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인력 충원계획에 따르면 △원전 건설·설계·정비·연구 등 분야별로 올해 필요한 2천1백71명을 충원하며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내년 소요인력 중 일부인 75명을 미리 충원한다.

인력 충원에 나서는 공공기관은 원전과 관련한 △공기업 5개(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연구기관 3개(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에 따라 2020년까지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에 약 1만명 수준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민주평통 김병일 사무처장

"민간 통일운동 소통의 역할 하겠다"

조영철 기자



김병일
연세대/ 행시 22회
서울시 대변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4월 19~22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북미주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민주평통 김병일 사무처장은 4월 14일 민주평통 북미주자문위원회 김영호 부의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대담에서 김 처장은 민주평통의 쇄신계획을 밝혔고, 김 부의장은 북미주에서의 민주평통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김병일 | 이번 북미주 지역회의를 준비하던 중 예기치 않게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미주 자문위원님들도 비상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호 | 우리 북미주 자문위원들은 국민 모두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저와 18명의 지역협의회장이 김 사무처장과 함께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해군과 실종자 가족을 위문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미주 동포들은 2001년 9·11 사태 당시 미국 국민들이 그 엄청난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유사한 위기 때 보여주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행동과 판단이 위기를 발전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기가 죽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가운 머리로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해군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전 세계 7백50만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천안함 희생자의 애국심을 기리는 '천안함 메모리얼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직 협의되지 않은 제 개인적 견해지만, 국제적인 합동조사 결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북미주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국제전범재판소에 회부하는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한미 FTA 美의회 비준 위해 적극 대처"

김병일 |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은 71퍼센트가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권자입니다. 북미주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달려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김영호 | 그렇습니다. 북미주 자문위원 중 다수가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자라 주류사회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국의 가장 큰 현안인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특히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디트로이트 주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것입니다. 또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생

김영호 북미주자문위 부위원장

"G20 성공 개최 위해 동포 힘 모을 것"

각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활동이 민족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병일 | 올해 가장 큰 국가행사가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날이지요. 민주평통은 이날을 'New Grand Korea의 날'로 선포하고, 전 세계 1백1개국에 퍼져 있는 민주평통 조직을 동원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사업을 준비하려 합니다.

김영호 | 좋은 생각입니다. 해외에서 살다 보니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행사를 한국이 주최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격을 한 차원 높이는 일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모국으로 둔 북미주 동포들은 미주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리고,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김 처장께선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걸맞게 민주평통 쇄신"

김병일 | 사실 남북관계 업무는 저로서도 처음 맡는 분야입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을 하고, 전문가나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민주평통 의장이신 이명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인 '남북 상생과 공영'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처 전 직원에게서 조직 전반을 진단하는 리포트를 받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들도 속기록을 통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 민주평통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병일 | 지금 남북관계 등 통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의 조직과 운영 방식, 사무처 조직을 변화시켜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대응 방안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민주평통이 모든 통일운동의 플랫폼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동원과 홍보가 아닌, 기업에서 말하는 '마케팅'이 통일운동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중심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7백만 재외동포를 엮는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호'만이 아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G



조영철 기자

김영호
성균관대/ 미주총연 수석부회장
세계한민족대표자회의 미주대표 역임

정리 · 김지영 기자

4·19 세대가 다시 본 이승만 전 대통령

"해방공간은 아프간 같았던 상황 민주국가 만든 건국 공로 평가해야"

이제 고희(古稀)에 이른 4·19 세대가 이승만 정권 시절을 돌이켜보고 있다. 혈기 넘치되 치기 어렸던 젊은 날에 비해 좀 더 성숙한 자세로 그때를 되새기며 어떤 업적과 과오가 있었는지 재평가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4·19 세대가 이승만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시각을 넘어서서 그의 공과(功過)를 공정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재평가를 시도하고 나섰다. 4·19 당시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3학년생으로 문리대 학생 데모를 이끌었던 한중문화협회 이영일(71) 총재가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미래정책연구소가 4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4·19 혁명과 이승만' 세미나에서 '4·19 세대가 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과 과(過)'를 발표했다.

"1960년 20대였던 4·19 세대들은 이제 70대에 이르렀다. 20대의 4·19 당시에 생각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고희에 이른 시점에서 보는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을 수는 없다. 정의감은 20대처럼 간직해야겠지만,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안목은 인생 70대 수준에 걸맞아야 할 것 같다."

이 씨는 발표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하려다 학생 시위대들에 발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 △정적(政敵)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것 △친일파 처리를 유야무야한 것은 과오라고 지적한다.

3·15 부정선거 등 단점… 민주화 토대 닦은 공로 있어

반면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향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한 것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조성한 것 △국민교육 강화, 경제 재건, 농지 개혁 등을 통해 민주화의 토대를 닦은 것은 이 대통령의 공적으로 든다.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큰 안목에서 평가하면,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초석을 올바로 세우고 한반도의 공산화 책동을 막아낸 공로에는 큰 방점을 찍을 수 있으나 장기 집권욕에 사로잡혀 과오를 범한 것은 업적의 액면 가치를 크게 감소시켰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통한 발췌 개헌과 1954년 4사5입 개헌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너그러운 자세를 보였다. 그는 "장기 집권을 시도한 것은 도의적, 절차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치사적으로 보면 한국을 포함한 신생국의 민주정치 발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치적 진통이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들의 정치 과정은 물론 5·16 이후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승만의 통치를 절대악으로 단죄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 영구분단의 원흉이라거나 6·25를 초래했다는 평가는 공산권 자료들이 공개되기 이전의 자료 부족에 기인하거나 냉전사에 뿌리를 둔 잘못된 평가였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이어가고 확립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통일을 위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치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세미나에서 '미국, 이승만, 그리고 4·19'를 발표한 부산대 이철순 교수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보통 친미파로 불리지만, 미국에 순응적인 맹목적 친미주의자이거나 대미 사대주의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식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은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려다 미국과 수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 이승만은 1945년 해방 직후 미국과 약간

동아DB



지난 4월 14일 대표적인 4·19 세대들이 모여 '4·19 혁명과 이승만' 세미나를 열고 이승만 정권 시절을 재평가했다.



1960년 4·19 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5월 29일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의 밀월관계를 가졌으나 신탁통치 파동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이어서 여운형, 김규식 중심의 좌우합작 정책에도 반대했다. 미국은 이승만을 견제하려고 했으나 정세 변화로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1950년대 미국은 순응적인 지도자를 원했고 장면을 그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며 미국에 대항했고, 결국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이에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고 유엔하의 군정을 선포하는 '에버레디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철순 교수는 "이승만은 미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강대국을 상대하면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교수는 1980년 대학에 들어간 386 세대 또는 5·18 세대에 속한다.

"그간 과도하게 비판받은 부분 등은 수정해야"

이승만 시대에 대한 4·19 세대의 또 다른 평가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 학자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에게서 나왔다. 4·19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시위에 참여한 최 교수는 최근 발간된 〈4·19와 모더니티〉에서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나눈 4·19혁명 50주년 기념 대담을 통해 "4·19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과도하게 비판받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자유당 독재가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체제의 문제는 아니었는가 하는 김우창 교수의 문제 제기 뒤에 나온 얘기다.

> **"장기 집권을 시도한 것은 도의적, 절차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이어가고 확립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통일을 위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치적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최 교수는 내란이나 다름없는 혼란을 겪으며 국가를 세우고, 북한과 대립하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또 전쟁을 겪는 조건에서 독재는 거의 필연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요즘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를 보면,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가 요즘 그 나라들을 보면서 한국의 해방 후의 상황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제 정치학도 공부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하면서 이승만 정부 시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컸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웠던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4·19 세대들이 4·19 이후 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절대악으로 비판했던 이승만 시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넉넉하게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G

글 · 김기철(조선일보 문화부 학술팀장) / 사진 · 조영철 기자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10년 4월 11일)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1. 직접차별 Ⅰ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직접차별 Ⅱ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 이용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간접차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지원 ·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장애인차별 진정접수방법

상담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인차별 진정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영역과 내용

≫고 용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차별 금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 장비의 개조 및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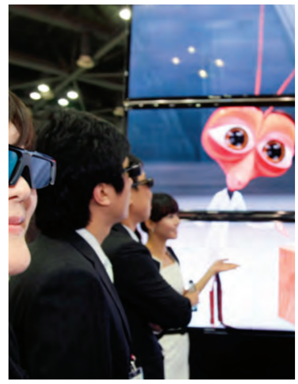
≫재화용역 이용
상품 서비스 토지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의 제한 거부 금지
시설물 및 교통수단 접근 이용 보장,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간행물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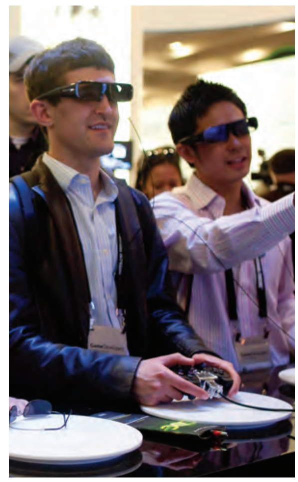
≫모 · 부성권 성 등
임신 · 출산 · 양육 및 성에 있어 차별금지 및 자기 결정권 보장

≫교육
장애학생의 입학 · 전학 거부 및 강요 금지
장애를 이유로 교내의 활동(수업, 실험, 수학여행 등) 참여 제한 금지
장애학생의 통학 이용 및 교육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법 · 행정 참정권
행정 사법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
장애인의 요청 시 보조인력 및 의사소통 수단 등 제공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
자기의사 결정권 교육권 재산권 등 보장
유기 학대 폭력 괴롭힘 등 금지,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기 획 특 집

3D 韓流
21세기 IT 신화를 열자

전 세계에 3D 붐을 일으킨 영화 〈아바타〉의 배경은 행성 '판도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 밑바닥에는 판도라가 미처 꺼내지 못한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는 정보기술(IT) 산업.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오감만족'의 삼총사 '콘텐츠·미디어·3D'가 미래의
황금알을 낳을 신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제2의 IT 신화. 그 희망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콘텐츠·미디어·3D'에



세계 최고의 3D TV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은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오감만족 영상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국내 한 업체 3D TV 홍보관의 시연 장면. 조영철 기자

콘텐츠·미디어·3D 산업은 미래 성장 잠재력과 고용 흡수력이 엄청나다. 정부는 4월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들 산업의 신규시장 창출, 규제 개선,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등 발전전략과 함께 고용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미디어·3D 산업 육성은 한 부처가 아닌 범국가적 어젠다가 돼야 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프로젝트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4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정보기술(IT) 업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건의한 말이다. 앞서 3월 초에 열린 '신성장 산업 컨퍼런스 2010 : 3D 혁명 어디까지 가나'에서 오해석 대통령 IT 특보는 "10년 전인 2000년에 인터넷이 이슈였다면, 10년 후인 올해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과 3D 산업이 중심 이슈"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관련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콘텐츠·미디어·3D 산업 분야는 미래 성장 가치가 높다. 반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은 4월 8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몇 년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위험부담을 감수해서라도 이들 산업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콘텐츠·미디어·3D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데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의 핵심은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우수 콘텐

미래가 달렸다

츠를 개발하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대기업, 중소 콘텐츠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컴퓨터그래픽(CG), 3D, 모바일 등 차세대 콘텐츠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중소 콘텐츠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이 공동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부가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 콘텐츠 생태계 프로젝트에는 3년간 민관 공동으로 5천억원을 투입해 관련 기업의 협업으로 3D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 민간, 해외투자자가 모여 2013년까지 2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제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CG 시장을 올해 연 1천3백억원에서 2015년까지 6천3백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CG 기술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올해 2백3억원에서 2014년 4백억원 규모로 늘린다. 해외 CG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에는 제작비를 20퍼센트 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가상현실 콘텐츠를 현재의 스포츠 위주에서 교육, 관광, 전시 등으로 응용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신규 일자리 8만 개 창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미디어 발전전략은 '미디어 이용 환경을 개선해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먼저 무선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각종 규제(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본인확인제도의 경우 해외 사이트와의 규제 형평성, 여론 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더 널리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국의 무선 랜(근거리 무선 인터넷) 이용 가능 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무선 휴대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5천억원을 지원한다.

미디어 기업과 콘텐츠 기업 간에 공정한 상생 협력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 업체,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케이블 방송사와 채널 사업자 간 공정한 수익 배분과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성장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3D 산업의 발전전략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2015년 3D 산업의 비전은 '2015년 3D 영상시대 본격화 및 세계진출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로 예정된 지상파 3D 실험방송을 차질 없이 추진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 **지금 우리는 콘텐츠·미디어·3D 산업 분야 혁신적인 기술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몇 년 안에 자리를 못 잡으면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정부가 위험부담을 감수해서라도 이들 산업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D 공간정보, 3D 문화재 복원사업 등 공공 부문의 3D 응용기술 사업도 4년간 2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선다. 3D 산업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무안경 방식의 3D TV를 정착시키고, 2012년까지는 3D 기술의 꽃인 홀로그램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콘텐츠·미디어·3D 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한 것은 이들 서비스 산업이 향후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콘텐츠·미디어·3D 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2014년까지 8만명에게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콘텐츠·미디어 △사회 서비스 △관광·레저 △교육·R&D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 산업 분야를 고용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분야로 설정했다. 그 1차로 이번에 콘텐츠·미디어·3D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다른 4개 서비스 산업 분야 육성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월드컵 3D 안경 끼고 "대~한민국"

8천억 투입 '3D 영상산업' 육성

3D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태동단계에 있어 국내 시장 조기 형성과 전략적 기술 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선점이 과제로 주어졌다. 정부는 방송, 영화뿐 아니라 조선, 항공, 광고 등 전 산업에서 3D 응용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2015년까지 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월 12일 저녁 8시 30분, 서울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첫 경기로 그리스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날이기 때문이다. 모두들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대형 전광판에서는 3D로 축구경기가 생중계되고 있다. 눈앞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생생한 박지성 선수의 골에 시민들은 광장이 떠나갈 듯 환호한다.

월드컵 3D 중계방송을 보며 응원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3D TV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6월에 열리는 남아공 월드컵의 실험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또 2013년이면 3D 방송이 보편화되고, 2015년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 3D 영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3D 기술은 어느새 우리 일상이 되고 있다.

3D 산업은 3D 기술을 활용해 TV,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3D



연합

영화 관객들이 3D TV 관람용 안경을 쓰고 3D 영상으로 제작된 TV 광고를 보고 있다.

제품과 영화, 의료 등 3D 응용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3D 산업의 핵심 요소는 3D 영상의 생성과 재생 기술이다. 3D 영상의 생성에는 처음부터 영상을 3D로 제작하는 방법과 2D를 3D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3D 영상을 재생할 때 현재는 안경을 써야 하지만 2015년이면 안경이 필요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홀로그램(빛의 산란을 이용해 입체영상을 재현하는 기술) 방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우리나라는 2D를 3D로 전환하는 기술,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방송장비, 무(無)안경TV, 홀로그램 등의 핵심 기술은 취약한 실정이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우리나라의 3D 주요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3D 콘텐츠 제작기술은 3년, 3D 방송장비와 카메라 기술은 3~5년,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는 2년, 홀로그램 기술은 5년 정도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3D 기술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만큼 선진국에서도 기술 개발과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3D 콘텐츠, 제작장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고, 3D 방송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무안경 TV, 홀로그램 등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 화상회의 등 응용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3D 기술, 방송 넘어 의료·광고·건축 등 광범위하게 응용

3D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3D 연구인력은 광운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에 2백여 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에 1백 여 명, LG와 삼성 등에 6백명 등 1천여 명에 불과하며, 특히 3D 영상 제작과 응용 분야 소프트웨어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 최근 3D 영화 제작이 많아지면서 촬영, 편집 등 현장인력과 2D를 3D로 전환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D 영화 한 편을 3D로 바꾸려면 3백여 명이 4개월 동안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D 기술은 영화, 방송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건축 등 광범위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다. 이미 3D TV부터 3D 게임기, 3D 휴대전화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세계 3D 디스플레이 시장이 2010년 9억2천만 달러에서 2015년 1백46억 달러로 매년 40퍼센트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3D 가전기기 시장은 LG, 삼성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3D 카메라, 영상시스템 등 장비 시장은 당분간 외국산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아바타〉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3D 상영관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3D 스크린을 7천 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일본은 3천 개 이상의 3D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D 스크린이 늘어나면서 3D 영화 제작과 상영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3D 장비와 콘텐츠의 해외 의존이 숙제로 꼽힌다.

3D 방송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에

3D란 무엇인가

3D는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 영상을 말한다. 인간의 두 눈은 좌, 우 다른 시각에서 물체를 본다. 양안의 각도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상이 뇌에 전달돼 입체적인 공간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하나의 렌즈로 양안의 시차만큼 각도 차이를 두고 대상을 두 번 촬영하거나 두 개의 렌즈로 동시에 촬영함으로써 입체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3D 영상 제작에는 3D 카메라로 촬영하는 실사와 평면영상인 2D를 특수 보정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영화 〈아바타〉는 3D 실사 촬영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합성해 제작한 것이다. 게임에서는 플랫폼 변경을 통해 입체게임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





한화건설

◀모델하우스도 3D로 '입체상담'을 한다. 한화건설은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모델하우스에 3D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대일 인테리어 상담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도 3D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서 하고 있으나 3D 지상파 방송을 시작한 곳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3D 시범방송을 서비스 중이나 방송사의 3D 콘텐츠 부족과 방송표준 부재 등은 문제로 남아 있다.

해외 특허출원 · 등록비용 등 전방위 지원

광고, 의료, 건축 등에 3D가 사용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3D 산업은 태동단계여서 시장 선점 여부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시장 조기 형성과 기술 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3D 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10월에 세계 최초로 KBS, SBS 등을 통해 3D 실험방송을 함으로써 국제적 방송표준 및 방송 기술을 선도한다. 또 3D 공공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정보 등을 3차원 영상으로 구축하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재청은 석굴암의 기록 보존과 황룡사 9층 목탑의 복원에서 3D 기술을 사용한다. 부산광역시가 '미래 시정 첨단 체험관'을 세우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3D 영상관을 설치하는 등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는 3D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015년까지 약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3년 본격적인 3D TV 방송시대를 열고, 2015년 무안경 3D TV 시대를 실현해 안경식 3D TV로 잡은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의료, 조선, 광고 등 응용 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응용 분야와 3D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3D 융합포럼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과용 실시간 3차원 입체영상 CT 장비, 3D LED 광고용 디스플레이 플랫폼, 3D 홀로그래픽 기반 e러닝 플랫폼 등 3D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산업계도 발 벗고 나선다.

인력, 시설, 자금 부족 등 3D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책도 마련됐다. 현장인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매년 6천명씩 양성하고, 전문인력은 광운대, 연세대, 충남대 등의 3D 계약학과와 전문과정 신설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이 고가의 3D 장비와 촬영·편집 시스템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백억원을 투자한다.

유망 3D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3D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 비용의 20퍼센트(중소기업은 30퍼센트)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3D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기술력 열세로 민간 투자에 위험이 높은 카메라와 방송장비는 2013년, 미래 핵심 기술인 무안경 TV와 홀로그램은 2015년과 202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3D TV 시청 시 예상되는 피로감과 어지럼증을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3D 기기 및 콘텐츠 인증기준, 시청자 보호 규정, 콘텐츠 제작 및 시청안전 가이드라인도 2011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3D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정보기술(IT)이나 방송 분야 첨단기술의 선례에서 보듯이 표준특허를 확보한 자가 시장을 지배해왔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내 표준을 마련하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기구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우리 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나선다.

기술표준을 구현할 때 필수적인 것이 특허다. 그런데 3D 관련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은 일반적으로 5개국 출원에 5천만~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출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출원·등록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특허 출원·등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에 지원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3D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3D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월드 3D 엑스포' 등 3D 전문 전시회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존의 3D 집적단지를 확대해 아시아 3D 허브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때 3D를 활용해 국가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3D 콘텐츠·기기·서비스 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전략을 마련해 3D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약 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식경제부 조영신 전자정보산업 과장은 "2013년 본격적인 3D TV 방송시대를 열고, 2015년 무안경 3D TV 시대를 실현해 안경식 3D TV로 잡은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2015년까지 영화, 게임, 드라마뿐 아니라 의료, 건설, 국방, 교육 등 전 산업에 3D 기술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비전이다. 이 같은 정책과 시장 전망을 토대로 정부는 3D 기기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2014년 약 15조원의 시장 창출과 약 4만명의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유승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교수

"기술 개발보다 응용서비스가 관건"

영화 〈아바타〉 덕분에 3D 영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그러나 3D 영화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22년에 최초의 상업용 3D 영화 〈Power of Love〉가 만들어졌고, 1952년에는 첫 3D 컬러영화인 〈Bwana Devil〉이 제작됐다. 그 후 3D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유행했으나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실제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15년 전에 〈아바타〉 3D 영화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그때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이다.

요즘은 사람을 분류할 때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 또는 〈아바타〉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아이폰과 〈아바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다. 소수의 천재가 수십만명을 먹여 살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국가 장래를 책임질 수도 있는 세상이다.

캐머런 감독이 "영화는 영화를 찍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에 관한 문제다"라고 말했듯이 향후 3D 산업은 기술의 우수성과 애플리케이션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새롭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상상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느냐로 승패가 판가름날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현실세계를 정밀하게 흉내 내는 가상현실과 달리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의 기반 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놓음으로써 현실세계를 보충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증강현실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감성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교육, 오락, 패션, 뷰티,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또 '분신(分身)'을 뜻하는 아바타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현재 아바타가 이용되는 분야는 채팅이나 온라인게임 외에도 사이버 쇼핑몰, 가상교육, 가상오피스 등으로 확대됐다.

머드게임이나 온라인채팅에 등장하는 아바타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해 등장한 것이 3D 아바타다. 3D 아바타는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이어주며, 익명과 실명의 중간 정도에 존재한다. 과거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에 매료됐지만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익명성과 표현욕구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게 아바타로, 사용자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아바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아바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3D 산업은 자본이나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다양한 3D 기기를 이용해 누가 먼저 제공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다. 따라서 3D는 산업 전 분야에 응용될 수 있지만 새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얼리어답터' 성향도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리면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치밀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볼 수 있으나 볼 게 없다… 문제는

한국의 3D TV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데 비해 국산 3D 콘텐츠는 세계 시장 점유율 2퍼센트가 안 될 만큼 척박하다. 정부는 향후 3D 콘텐츠 시장이 3D TV 시장보다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 양성, 온·오프라인 허브 구축 등에 적극 나섰다.

조영철 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볼츠 앤 블립〉이 5월부터 연말까지 1백50여 개국에 수출된다. 사진은 이 작품의 국내 제작사 레드로버의 직원들.

2080년 달나라에 있는 로봇 기지. 가까운 지구에 분쟁이 생기면 귀여운 깡통 로봇을 닮은 ‘볼츠’와 ‘블립’ 전사가 달려간다. 재치 있는 여자 친구 ‘새디’와 근육맨 ‘타이거 잭슨’이 가세한 이들 4총사가 악당 블러드 박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갖가지 해프닝이 생긴다….

이른바 ‘로봇 판타지’를 표방한 3D TV 애니메이션 〈볼츠 앤 블립〉은 한국과 캐나다의 합작품이다. 한국 3D 벤처기업 레드로버와 〈토이스토리2〉, 〈미녀와 야수〉 등 히트작을 터뜨린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전문기업 툰박스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고 2년 반의 작업 끝에 탄생시킨 것이다.

22분짜리 26부작을 2D와 3D로 동시에 제작한 〈볼츠 앤 블립〉은 5월이면 유럽 메이저 방송사인 프랑스의 카날플러스(Canal+)에서 선을 보인다. 또 6월 말 호주의 ABC 방송에 이어 11월부터는 미국의 주요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등 연말까지 무려 1백50여 개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지구촌 안방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KBS, SK브로드밴드의 IPTV에 방영하기로 했다. TV 방송과 함께 게임과 만화 부가상품 출시도 활발하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콘셉트로 드래곤플라이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고, 케나즈는 만화와 일러스트로 출시할 예정이다.

레드로버 하회진 사장은 “〈볼츠 앤 블립〉은 방영이 시작되는 5월부터 5년간 TV와 DVD, 영화, 라이센싱 등으로 모두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메이저 방송사들이 〈볼츠 앤 블립〉의 시즌 2를 공동 제작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1백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한 데 비하면 만루홈런을 날린 셈이다.

레드로버 현경식 전략기획이사는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80~90퍼센트를 차지하는 북미와 유럽 시장의 정서에 맞춰 기

콘텐츠"





3D 영화 〈아바타〉는 영화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3D 열풍을 일으켰다.

획 제작한 게 세계 3D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한 비결"이라고 말한다. 레드로버는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할리우드 대형 배급사와 3D 극장용 애니메이션 작품 〈넛잡〉을 공동 제작 배급할 계획이다.

〈볼츠 앤 블립〉은 정부가 지원한 3D 콘텐츠 사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2007년 문화산업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해 볼트 앤 블립용 특수목적회사(SPC)를 지원한 1호 사례. 우리나라 3D 콘텐츠가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3D 콘텐츠 업계에서 이런 성과는 매우 드문 경우다.

"볼 수는 있으나 볼 게 없는 현실이 한국 3D 시장 활성화의 큰 저해요인이다."

3D TV 기술은 세계 1위·2위… 콘텐츠는 '걸음마'

LG경제연구원 이지홍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자랑하는 국내 3D TV 기술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국내 3D 콘텐츠 시장의 현주소를 짚은 비유다. 이 주장에 이의를 다는 이들이 거의 없을 만큼 국내 3D 콘텐츠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전 세계 3D 콘텐츠 시장은 3억 달러 규모. 할리우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세계 3D 콘텐츠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3D 콘텐츠 시장은 세계 시장의 2퍼센트 미만인 4백억원(약 3천6백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주목할 것은 향후 3D 시장의 양대 주자인 3D 디스플레이 시장과 3D 콘텐츠 시장의 성장 추세다. 3D TV로 대표되는 세계 3D 디스플레이 시장은 올해 9억 달러로 영화, 게임, 방송 등 3D 콘텐츠 시장 규모(2009년 3억 달러)를 크게 앞선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콘텐츠 시장은 디스플레이 시장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전문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15년 세계 3D 콘텐츠 시장 규모 예상치는 3백90억 달러로, 같은 해 디스플레이 시장 1백50억 달러의 2.5배를 넘는다. 지난 10여 년간 3D 콘텐츠 제작을 해온 빅아이엔터테인먼트 최용석 사장도 이 점을 우려한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쇼에서도 우수한 3D 콘텐츠 확보가 중요한 이슈였다. 삼성, LG의 3D TV 기술이 전 세계 최고라는 걸 인정받았는데도 경쟁사인 일본의 소니는 여유 있어 보였다. 소니는 '소니 픽처스', '소니 스테이션'과 같은 영화와 게임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 비유하면 우리나라 TV가 세계에 팔려나가면 사람들이 그 TV를 보는 10년 동안 내내 소니에서 콘텐츠를 팔 수 있다는 계산이다."

소니처럼 글로벌 기업들은 3D 콘텐츠 연계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화 〈아바타〉를 지원하며 시장 확대를 도모한 파나소닉은 3D 영상 촬영에서 전송, 디스플레이기기까지 전 과정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다. 드림웍스 등 미국 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콘서트 등 3D 콘텐츠 제작과 배급은 물론 의료기기, 프로젝터, 모바일 등 3D 응용제품 개발과 유통 기회를 잡는 데 분주하다.

할리우드는 올해 3D 영화를 20편 이상 제작해 전 세계에 3만여 개로 늘어날 3D 전용 상영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방송 시장에서는 일본 위성방송 BS11에서 2007년 첫 3D 방송을 내보낸 데 이어 최근 미국 NBC, 영국 BSkyB,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등에서 드라마, 광고, 오페라, 스포츠 프로그램을 3D로 방영하고 있다.

게임 시장에서도 각축이 치열하다. 영화 〈아바타〉를 게임으로 만든 〈아바타 더 게임〉 외에 〈니드 포 스피드 시프트〉 등 3D 효과가 극대화된 게임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3D 콘텐츠 시장은 이제 진입 단계다. 현재 국내 3D 콘텐츠 시장은 테마파크, 지방자치단체 홍보영상관, 박



스카이라이프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올해 세계 최초로 3D 전용 채널을 개설하고, 자체 제작한 3D 시리즈물을 방영한다. 지난해 말 열린 스카이라이프의 3D TV 전략 발표회.

물관 등 로컬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90퍼센트 이상이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첫걸음을 뗀 상태. KBS는 올해 안에 3D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SBS는 3D 콘서트를 제작해 극장에서도 상영할 계획이다. MBC와 EBS는 각각 2D로 촬영한 인기 다큐멘터리를 3D로 바꿔 방영한다.

3D 콘텐츠 제작업계에서는 중소 벤처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앞에서 본 레드로버의 사례 외에 스테레오픽처스는 미국 워너브라더스의 2D 영화 〈캣츠 앤 도그스 2〉를 3D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주했다. 리얼스코프는 SBS 아트텍과 3D 콘텐츠를 만드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빅아이엔터테인먼트는 3D 장편 애니메이션 〈도깨비〉를 제작 중이다. TU미디어는 세계 최초로 3D 위성 DMB폰으로 세계 최초의 3D DMB를 시험방송하고 있다. 취약한 분야는 영화. 올해 국내에 개봉하는 3D 영화 26편 가운데 국내 작품은 3편(〈현의 노래〉, 〈제7광구〉, 〈아름다운 우리〉)뿐이다.

정부는 이처럼 막 싹트기 시작한 국내 3D 콘텐츠 시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되어 발표한 '3D 콘텐츠 산업 육성전략'은 2015년 한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5위 안에 드는 3D 콘텐츠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비전과 5가지 전략,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5가지 전략은 △기초 제작 인프라 구축 △제작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기술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단기 추진 과제로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이 급선무다. 2009년 문화산업 통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3D 제작인력은 촬영 편집에만 1만명. 여기에 2012년까지 2D를 3D로 전환하는 인력 7천명도 추가로 필요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카데미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아카데미에서 각각 3D 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며 사설 아카데미, 기업 자체 인력까지 합쳐 제작인력 수요를 맞출 계획이다. 인력 못지않게 시급한 3D 촬영 편집 장비에도 2013년까지 국고 1백9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문 펀드 조성 등 3D 콘텐츠 기업 육성 박차

이와 함께 정부가 앞장서서 3D 콘텐츠 전문 펀드를 발 빠르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 단말기 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등이 출자해 1백50억원 규모로 3D 전문 펀드를 조성했으며, 2015년까지 1천억원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1천6백50억원을 투자해 촬영, 변환, 복원을 비롯해 초고해상도 렌더링, 홀로그램 등 3D 콘텐츠 제작 핵심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부터는 3D 콘텐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인증하는 이른바 '휴먼 팩터'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안정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평가단을 운영하며 2012년에는 3D 콘텐츠 인증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3D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문화수출보험 한도를 총제작비의 현행 20~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선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해외에 수출

김영국 스카이라이프 3D사업추진위원장

세계 최초 3D 전용 채널 개설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사장 이몽룡)는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3D 방송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3D 방송 콘텐츠 제작 및 3D 방송 실황 중계를 할 예정이다. 김영국(50) 스카이라이프 3D사업추진위원장은 "안방에서 3D TV를 즐기려면 무엇보다 제대로 만든 3D 콘텐츠가 관건"이라며, 올 초 세계 최초 3D 전용 채널 'Sky 3D'를 개설하는 등 선도적으로 3D 방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영하는 3D 방송 프로그램

올 5월에 개최되는 '2010 내셔널 실업축구리그'를 국내 최초로 3D로 생중계하는 데 이어 〈3D 골프〉외에 〈3D 마술쇼〉, 〈3D 패션쇼〉, 〈3D 쿠킹쇼〉, 〈3D 쇼케이스〉 등 정규 시리즈물을 방영합니다. 또 축구, KPGA챔피언십, 야구, 씨름, 당구 등 스포츠 경기를 3D로 중계합니다. 공연물로는 〈호두까기 인형〉, 〈난타〉 등을 실황 중계할 예정입니다.

3D 방송의 킬러콘텐츠인 영화는 〈Call of the wild〉 등 3편을 확보했고, 실사 및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연내 20여 편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극장 상영 후 바로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영화 전문 3D 채널을 개설하고, 영화 대여 서비스인 3D MRS(Movie Rental Service)도 연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3D 방송 제작과 해외 진출 현황

스카이라이프에서는 3D 장비로 방송 프로그램을 자체 촬영 편집하고, 3D 방식으로 송출해서 시청자들이 안정적으로 3D 영상의 입체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3D 입체감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줌인·줌아웃 기능이 있는 최첨단 3D 카메라를 갖추는 등 제작중계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본, 대만, 중국, 영국 방송사와 3D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거나, 자체 제작한 3D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 유통회사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스카이라이프가 축적한 세계 최초 24시간 3D 방송 개설 노하우를 해외 방송사에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3D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에 바라는 점

3D 콘텐츠 제작은 고비용 구조 때문에 제작비 조달이 어려워 중소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제작자가 수익을 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가 현재 3D 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3D 입체영상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3D 영상 제작 스튜디오, 정부 및 관련 업계의 펀드운용 콘텐츠 활성화, 국내 가전사의 3D 콘텐츠 육성을 위한 기여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가치가 있는 3D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까지 6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3D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1년부터는 3D 영화 페스티벌, 3D 워크숍, 국제 컨퍼런스 등 국내외에서 3D 붐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3D 공공 콘텐츠 시범사업을 위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등의 영상홍보관에 3D 제작 예산을 보조해준다.

온·오프라인에서 3D 제작 인프라도 구축한다. 오프라인에는 3D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3D 콘텐츠 제작 허브센터를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예산은 2천2억원.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3D 콘텐츠 앱스토어'를 구축해 3D 콘텐츠를 사고파는 시장을 활성화한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6천2백19억원을 투자해 개척할 한국의 3D 콘텐츠 시장이 2015년에 2조원(수출 1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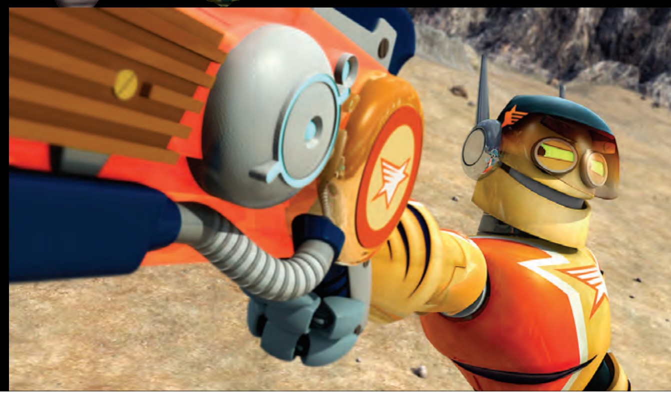
한국콘텐츠진흥원 주봉현 차장은 "현재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키워드는 3D 콘텐츠"라며 앞선 미래전략을 주문했다. "2000년 초반 NHK 기술연구소는 UD(Ultra Definition·초고해상도) TV의 전(前)단계로 3D TV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하고 있다. 3D를 넘어 오감을 자극하는 실감 미디어를 대비하는 국가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한국형 3D 영화 어디까지 왔나



한국에서 3D 영화를 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한국 영화의 예술과 기술이 정보기술(IT) 산업과 접목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달나라 로봇기지가 무대인 〈볼츠 앤 블립〉은 2D, 3D TV 애니메이션에서 출발해 DVD, 게임, 일러스트, 캐릭터 상품 등을 파생시킨 고부가가치 콘텐츠 상품이다.

3D 영화를 과학적 개념으로 풀어보면 스테레오스코픽 시각화(Stereoscopic Vision) 기술을 사용해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하는 방식이다. 인간은 양쪽 망막에 약간씩 다르게 맺히는 영상을 통해 입체를 인식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양쪽 눈에 각기 다른 영상을 보여주는 기술이 3D 영화의 과학적 기반이다.

직접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눈앞에 볼펜을 든 채로 오른쪽과 왼쪽 눈을 깜박여보자. 배경에서 볼펜이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질 것이다. 두 눈이 받아들이는 영상은 가까운 물체일수록 달라진다.

깜짝 놀랄 사람들도 있겠지만, 입체영사 방식에 관한 최초의 특허는 1890년대에 영국인 윌리엄 프리즈 그린(William Friese-Greene)이 등록했으며, 최초의 대중 상영은 1915년 6월 10일 뉴욕에 있는 에스터 극장에서 이뤄졌다. 3D 영화는 1950년대에 갑자기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미국 내에서만도 70편 이상 제작됐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제작된 3D 영화의 수와 맞먹는 규모다.

3D 영화는 과거 2대가 필요했던 영사기가 200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영사기 1대로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됐다. 시작은 2005년 극장용 애니메이션 〈치킨 리틀〉. 입체상영도 재개봉에 한정됐고, 3D 상영관의 규모도 매우 작았지만 반응은 괜찮았다. 2007년에 개봉한 〈베오울프〉는 기존의 영화상영 방식과 입체상영 방식 사이의 상업적 성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첫 번째 사례였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3D 상영관의 평균수입이 일반 상영관의 3배에 이름으로써 3D 영화의 상업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가 된 것이다.

2009년에도 3D 영화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09년 상반기에 개봉된 드림웍스의 〈몬스터 vs 에이리언〉의 경우 미국 내 4천1백4관 7천3백 개 스크린에서 동시 개봉됐는데, 3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3D 스크린에서 전체 수입의 5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2007년 〈베오울프〉의 기록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2005년 〈치킨 리틀〉에서 2009년 〈아바타〉까지

이어 개봉한 〈블러디 발렌타인〉에서 그 비율이 80퍼센트까지 뛰어오르자 할리우드 극장사업자들에게 3D 상영시스템 설치는 이제 유행을 넘어 필수적인 설비투자 요소가 됐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바타〉를 기다렸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 글이 아니라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3D 영화를 제작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도 3D 영화로 제작을 기획하던 영화들이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최초의 3D 영화가 될 줄 알았던 〈제7광구〉는 개봉 후 3D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랑프리〉 또한 3D 영화 제작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들 영화의 기획을 돌려놓는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제작 환경의 미비를 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려운 제작 환경을 무릅쓰고, 국내에서 최근까지 3D 영화로 제작되고 있거나 기획하고 있는 작품은 김훈 원작의



〈현의 노래〉와 곽경택 감독의 〈아름다운 우리〉(가제) 등이며, 봉만대 감독의 〈덫〉과 심형래 감독의 〈라스트 갓 파더〉도 3D 상영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몇 편의 영화 가운데 어떤 영화가 한국 최초의 3D 영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는 엄청난 시행착오와 고난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 이후에도 한국에서 3D 영화를 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3D 영화는 초기 단계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문법'과 기술의 도입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그간 한국 영화의 예술과 기술을 담당하던 각자가 정보기술(IT) 산업과 접목된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해 확산시키는 풍토가 미약했던 탓에 영화계 일반에 지식이 확산되고 공유하는 데는 일정 기간의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신기술 자리 잡을 때까지 체질개선 노력해야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국 영화계에 필요한 체질개선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인력 양성 및 지식 재생산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현장의 영화제작 인력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타인과 나누면서 검증해나가는 방법이 적당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이 습득된 지식의 확산과 보급, 검증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해본다.

둘째, 타 산업 분야와의 협업적 기술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간 공적 지원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기술개발이 이뤄졌지만 영화 현장에서의 활용과 개선이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기술개발 요구가 창작자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화제작을 위한 기술개발은 다른 산업처럼 성능 위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연출자의 창작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각 분야 전문가가 해결해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전문성을 나눠야 하는 것이다.

셋째, 시스템이 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화가 기획 제작되고 상영되는 과정은 한국의 다이내믹한 제작 환경에서도 어림잡아 2년의 시간이 필요한 인고의 과정이다. 영화를 만드는 개인들의 경험이 쌓여 시스템이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가 한국의 3D 영화를 응원하고 있지만, 올바른 응원이 필요한 때다. G

글 · 이재우(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센터 연구원)

3D를 넘어 4D로

4D는 3D의 입체감에 냄새, 바람, 속도, 촉감 등 다양한 환경 효과를 더한 것을 말한다. 3D 영화 〈아바타〉를 4D로 본다고 가정하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거대한 새 등 위로 올라타는 장면에선 의자도 같이 덜컥거려 주인공처럼 새 위에 탄 느낌을 받고, 새가 창공을 가르며 날 때는 귓가에 바람이 휙 지나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느낌을 받는다. 4D 상영관에는 영상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 분사, 공기 분사, 다리 충격, 의자 떨림 및 충격, 비눗방울, 바람 등 4D 특수효과가 설치된다.

화면에 슥 비추니 온갖 정보가 술술~

2015년 미래네 가족의 하루 미리 보기

**카메라로 비춰지는 실제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가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서비스다. 한마디로 현실에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와 의미를 보강해주는 것이다.
곧 상용화될 증강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가상 인물인 '미래네' 가족을 통해 들여다봤다.**

딸 김미래(11)
"야외학습에서도 궁금한 건 모두 스마트폰에 비춰봐요"

저는 초등학생인 '미래'라고 해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는 경남 고성으로 탐구수업을 받으러 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간 곳에 선생님께서 공룡 발자국이라고 소개해주신 화석이 있었어요. 둥글고 커다란 모양도 있고, 긴 발가락 세 개가 모여 있는 것도 있었어요. 공룡 발자국 위로 스마트폰을 가져가니 발자국 화석 위로 뭔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깜짝 놀라 다른 발자국을 찾아 화면을 옮겼더니 둥글고 커다란 발자국 위로 초식 공룡이 나타났어요. 긴 발가락 세 개가 모여 있는 발자국 화석으로 화면을 옮기니 육식 공룡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타나 또 한 번 놀랐어요. 화면에 나타난 공룡을 손으로 누르니 이 공룡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공룡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본 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남짓 달려서 경남 창녕 우포늪에 도착했습니다. 우포늪에는 처음 본 식물들이 많았어요. 연꽃처럼 생겼지만 뾰족한 잎이 있는 식물이 보였어요. 그 위로 스마트폰을 가져가 비췄더니 화면에 보이는 식물 위로 '가시연꽃'이라고 뜹니다. '가시연꽃' 글씨를 클릭했더니, 이 식물이 국내 어디에 분포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나타나네요.

오빠 김증강(15)
"따분한 과학시간이 3D 덕분에 생생하고 재밌어요"

중학생인 오빠는 학교에서 과학수업이 있어요. 요즘 오빠는 과학시간에 추상적인 개념인 원자와 분자, 화합물 분자식 등을 증강현실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공부해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마커 위로 각각의 모습이 나타나 세 마커를 합쳤더니 물 분자가 되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대요. 분자식으로는 구체적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았는데, 오비탈, 공유결합 등을 3D로 나타난 모습으로 보니 훨씬 이해도 잘된다고 하네요.

오빠는 방과 후 매일 증강현실 게임을 합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오빠가 그림을 그리면 애완동물은 놀랍게도 그걸 따라 그려요. 그 그림이 3차원으로 '뿅' 하고 나타나면 정말 신기해요. 각종 매직 카드로 볼링도 할 수 있고 목욕도 시킬 수 있어요.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불러주면 애완동물은 귀엽게 웅얼거리면서 따라 하기까지 합니다. 이 애완동물은 화면 속에 있는 가상이긴 하지만, 화면에는 오빠랑 저도 함께 나오니까 진짜 기르는 애완동물 같아요.

아빠 김편리(40)
"속도·날씨 등 자동 체크… 출퇴근길 더욱 안전해졌어요"

아빠는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 읽다가 스마트폰을 들어 신문을 비춥니다. 스마트폰 위로 기사의 뒷이야기가 실린 동영상이 보여요. 기사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3차원 그래프나 영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멈춰 있는 사진과 기사 위로 동영상이나 3차원 영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신기해요.

아빠의 직업은 외과의사입니다. 병원이 집에서 좀 멀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아빠는 시동을 켜자마자 헤드업 마운티드(Head-up Mounted)를 설정합니다. 운전하면서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하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익숙한 길이라 내비게이션은 끄고 대신 현재 속도와 기온, 지나가는 도로에 대한 정보만 켜둡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석 앞유리에 선택한 정보들이 잇따라 떠오릅니다. 아빠는 헤드업 마운티드가 자동차에 사용되면서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운전하는 시야에 맞춰 필요한 정보가 뜨고, 안개가 끼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등 각각의 상황에 맞춰 도로의 시야를 보여주고, 앞뒤 차와의 간격도 알려줘서 그런가 봅니다. 물론 선택에 따라 운전하고 있는 거리의 주변 정보도 볼 수 있어요.

아빠는 수술하실 때 수술용 증강현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전보다 수술 스트레스가 덜해졌다고 해요. 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MRI)나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로 몸속 장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서 환자의



일러스트 · 남동윤

>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만남입니다.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로 실물을 비췄을 때 보이는 모습은 현실이고, 그 현실 위로 부가적인 정보(2D, 3D, 동영상, 사운드 등 콘텐츠)가 결합돼서 가상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증강현실을 쉽게 접하려면 스마트폰의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위키튜드(Wikitude),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오브제(OVJET) 등이 있어요.

몸에 투사하면 절개하기 전에도 환자의 속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래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숨을 쉬며 움직여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엄마 이현실(38)
"시장 볼 때 동선 확인…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엄마는 그동안 미뤄왔던 소파를 장만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쇼핑몰에 들어가더니 마음에 드는 소파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집 안의 다른 가구와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본다며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거실 화면을 비췄습니다. 그러더니 좀 전에 찜해놓은 소파를 올려놓으시네요. 화면 위에서 소파 위치도 바꿔보고 색도 바꿔가면서 확인해보시더니 캡처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놓았습니다. 선택한 다른 소파들도 그렇게 하시더니 캡처한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만장일치로 클래식풍의 화이트 소파로 결정!

이제 엄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십니다. 엄마는 마트에 가시기 전 필요한 것들을 스마트폰에 미리 정리해놓았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에 필요한 목록을 열었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부터 목록이 재배치됩니다. 먼저 살 물건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화살표가 카메라 화면 위로 나타납니다. 다른 물건을 사러 가는 도중에 유기농 우유가 30퍼센트 할인된다고 화면 위로 나타나자 엄마는 바로 유기농 우유를 집어 드시네요. 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스마트폰에는 가격이 더해서 표시되고, 마트를 나가면서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로 자동 결제돼 엄마는 지갑을 열지 않아도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답니다. G

글 · 김현정(동아사이언스 기자)



3D TV는 사람의 두 눈이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이미지로 보는 시각의 차이를 이용해 3차원 입체영상을 구현한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

"모든 디스플레이 10년 내 3D로 바뀐다"

영화 〈아바타〉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3차원(3D) 입체영상의 대가로 불리게 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10년 후 지구상의 모든 디스플레이가 3D로 변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지금처럼 3D 제품과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가 예견한 3D 세상은 그보다 더 빨리 구현될 것이다. 새로운 3D 시대,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광고회사에 다니는 A씨는 일을 마치고 서둘러 귀가했다. 오후 8시에 시작하는 한일전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서다. 예전 같으면 직장 근처의 호프집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TV 중계를 즐겼겠지만, 3차원(3D) TV 덕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축구경기가 3D 라이브 입체영상으로 중계돼 TV 앞에 앉아 있으면 마치 가족 모두 경기장 로열석에 앉아 관전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A씨의 아내도 음식을 못해 걸핏하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찾더니 3D 요리강습을 시청하면서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생생한 3차원 입체영상으로 요리를 배우니 신선한 재료 고르는 법부터 음식 양 조절하기, 먹음직스럽게 스타일링하는 방법까지 쉽게 익히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남은 재료를 비빔밥, 전골 등에 활용하다 보니 음식 쓰레기도 확 줄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렇게 바뀔지 모른다. 2차원(2D) 평면 와이드 TV에 열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대형 PDP TV나 LCD TV가 집집마다 벽면을 차지한 것처럼, 이제는 3차원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는 3D TV가 안방극장의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3D 시대를 제대로 즐기려면 먼저 3D 입체영상의 구현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의 두 눈은 6.4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같은 물체를 서로 조금 다른 이미지로 본다. 뇌는 두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하면서 사물의 거리와 입체감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차이를 이용한 것이 3D 입체영상이다.



3D 안경은 3D TV를 볼 때 꼭 써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다.

두 눈이 동시에 다른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의 입체로 인식하게 만드는 3D TV는 3D 입체영상의 구현 방식에 따라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나뉜다. 수동형은 화면의 홀·짝수 라인에 서로 다르게 설치된 편광판을 부착하고, 3D TV를 볼 때 착용하는 안경 렌즈에도 편광렌즈를 부착해 좌우 영상이 분리되게 하는 방식. TV 스크린에 별도의 3D 필터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TV 가격이 다소 비싼 반면 안경 가격은 저렴한 편이며, 3D 전용 영화관처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능동형은 안경의 좌우측 렌즈에 들어오는 TV 입체 신호를 번갈아 차단할 때 발생하는 왜곡효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수동형에 비해 TV 가격은 약 40퍼센트 저렴하지만 안경 가격이 비싸고 안경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단점이다.

2D 영상은 좌우로 넓게 퍼지더라도 감상에 큰 지장이 없는 반면 3D 입체 영상은 양쪽 눈에 균형 있는 영상을 보여줘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극장에서 3D 영화를 관람할 때 최적의 자리는 중앙라인이다. 가정에서 3D 입체영상을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 될 수 있으면 화면과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정면에서 감상하고, 1.5~5미터의 거리를 둬야 눈의 피로감을 줄여 편안하게 볼 수 있다.

10월 세계 최초 풀HD 지상파 3D 방송

하지만 아직은 3D TV를 집에서 즐기기엔 관련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사실. 이러한 문제는 시중에 출시된 3D 영화 DVD나 3D 전용 채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월부터 3D 방송 전문채널인 '스카이 3D'를 채널 1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채널은 하루 24시간 내내 3D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3D 콘텐츠의 수요와 시장 규모는 오는 6월 월드컵을 계기로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방송업계는 오는 10월 개시를 목표로 세계 최초의 풀 HD 지상파 3D 방송을 준비 중이어서 3D 붐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3D TV는 눈앞에서 바로 튀어나올 듯한 생생한 입체감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묘미다. 영화관에서처럼 제대로 된 3D를 즐기기 위해서는 3D 화질 못지않은 입체음향을 제공하는 홈시어터나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같은 주변기기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아이티 등의 3D TV 생산업체들이 3D TV 라인업(LED, LCD, PDP)과 함께 3D 블루레이 플레이어, 홈시어터, 3D 프로젝터 등의 주변기기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3D TV 어떤 게 좋은 거지?

◎ 잔상 없는 깔끔한 입체감 구현 여부 확인

3D TV는 왼쪽과 오른쪽 눈에 번갈아가며 초당 2백40장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체감을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잠시라도 양쪽 눈에 동일한 화면이 비춰지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영상 겹침(Cross-Talk) 현상이 나타난다. 3D 영화를 본 뒤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3D TV를 구입할 때는 잔상이 없는 깔끔한 입체감을 구현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1초당 2백40장의 영상을 보여주는 2백40헤르츠 기술보다 한 차원 높은 '트루모션 4백80헤르츠' 기술을 적용한 제품도 나왔다. 이 기술은 초당 2백40장의 영상을 번갈아 보여줄 때 화면 사이사이에 검은 화면이 들어가 마치 4백80장의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 LED 소자 개수 확인

3D TV로 3차원 입체효과를 느끼려면 3D 안경을 쓰고 화면을 봐야 한다. 눈앞에 하나의 창을 덧씌워 보는 방식이라 맨눈으로 볼 때보다 TV 밝기나 화질이 떨어진다. 또 착시효과를 내기 위한 화면 분리로 고화질의 밝기를 구현하는 일반 2D(2차원) TV에 비해 화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3D TV를 고를 땐 화질의 선명도가 핵심 포인트다. LED 3D TV의 경우 화질의 선명도는 TV 화면에 빛을 보내주는 LED 소자가 화면 뒤에 얼마나 많이, 촘촘히 배치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 LED 램프 스스로 소비전력 조절하는지 확인

3D TV를 고를 때는 절전효과와 에너지 효율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품에 따라 절전효과나 에너지 효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적의 화질을 구현하면서도 소비전력을 최대 몇 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는 제품인지, 절전모드가 잘 갖춰졌는지, 외부의 조명 변화를 감지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지, LED 램프들이 영상밝기에 따라 스스로 소비전력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등은 필수 체크포인트.

◎ 다양한 부가기능이 있는지 확인

3D TV를 충분하게 활용하기엔 아직 3D 콘텐츠와 주변기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3D TV를 구입할 때는 3D 기술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 못지않게 집에서 활용 가능한 부가기능을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3D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TV로 볼 수 있는 기능, TV를 통한 무료 영상통화 기능, TV와 외부 메모리기기를 연결해 디지털 녹화 재생을 하는 기능 등이 그것이다.

◎ HDMI 1.4 버전 · HD 지원 여부 확인

고화질 입체영상을 즐기려면 3D TV가 풀 HD 영상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블루레이 디스크로 나올 3D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뿐더러 화질이 떨어져 어지럼증 현상도 심해진다. 풀 HD 영상 전송이 가능하려면 영상과 음성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 단자인 HDMI(고화질멀티미디어인터페이스)가 1.4 버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시중에 나온 일부 제품은 1.2나 1.3 버전의 HDMI를 적용하고 있어 풀 HD 감상이 불가능하다.

미디어는 지금 짝짓기 중

‘오감 만족’ 컨버전스 시대가 왔다

현재는 가히 인터넷 르네상스 시대. 사회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이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대전환의 시점이다. 인터넷 자체도 혁신이 거듭된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이 만들어놓은 기존 미디어 질서가 새롭게 재정의되고 재편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아이폰이 구현한 콘텐츠 제공 환경에 동영상과 전자책, 기타 문서 작업 기능까지 갖춘 아이패드는 미디어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대표주자로 꼽힌다. 4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애플 매장에서 이날 출시된 ‘아이패드’를 구입한 고객이 기뻐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미디어 시장도 출렁인다. 이른바 '미디어 생태계'의 기본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생존, 번식, 진화하는 유기체와의 관계가 생태계의 정의라고 한다면 인터넷이 만들어낸 환경이 기존 미디어 체계에 민감한 영향을 끼친다는 현실적 접근이 어렵지 않다.

〈뉴요커 매거진〉의 세계적 미디어 칼럼니스트 켄 올레타는 저서 〈세 마리 눈먼 쥐, TV 네트워크들, 갈 길을 잃어버리다〉 등에서 "인터넷이 전통 미디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생태계 전환의 가치와 그 당위성을 우회적인 표현을 빌려 강조했다.

이처럼 인터넷 르네상스에 힘입어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세계적 화두로 부각됐다. 5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디지털포럼'에서도 '인터넷 르네상스로 미디어 생태계가 新르네상스를 맞다' '제2의 르네상스를 맞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미디어'라는 주제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인터넷 보급률이 계속 높아지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실시간으로 담아낼 수 있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디어 및 플랫폼, 미디어 콘텐츠 및 관련 인적, 지적 인프라까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끼리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상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등장이 유난히 두드러진다.

소셜 미디어·쌍방향 통신 등 미디어 생태계 변화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쌍방향으로 정보와 의식을 공유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발적 미디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온 비디오 블로그, UCC(사용자 손수제작물), 소셜 네트워크, 트위터, 팟캐스트(Podcasts·인터넷 방송 자동 전달 미디어), 위키(Wiki) 등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다.

나아가 전통 미디어 모델이 인터넷 등과 결합하면서 새 미디어 모델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미디어 생태계 변화의 한 축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TV와 개인용 컴퓨터(PC)의 경계를 허물고 인터넷 쌍방향 서비스를 TV 속에서 만들어내는 개방형 IPTV가 국내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유수의 통신 기업들 역시 개방형 IPTV에 '올인'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 KT는 TV 앱스토어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IPTV' 전략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이폰의 앱스토어를 TV에서도 구현하겠다는 것. 오는 12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인터넷 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처럼 사람들끼리 다양한 콘텐츠 등을 거래할 수도 있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개방형 IPTV를 미디어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세'로 주목하고 있다. 남중수 전 사장이 이미 2007년에 "미디어 생태계를 새로 구축해 블루오션을 창출하자"는 기치를 내세운 바 있는 KT는 최근 3백억원을 개방형 IPTV 중심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펀드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도 올해 안에 TV를 시청하면서 원거리 채팅이 가능한 IPTV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개방형 IPTV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세계적으로도 TV, 컴퓨터 등이 통합된 미디어의 출현이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이끌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특히 4월 3일 미국에서 출시된 애플사의 아이패드는 미디어 지각변동을 선도할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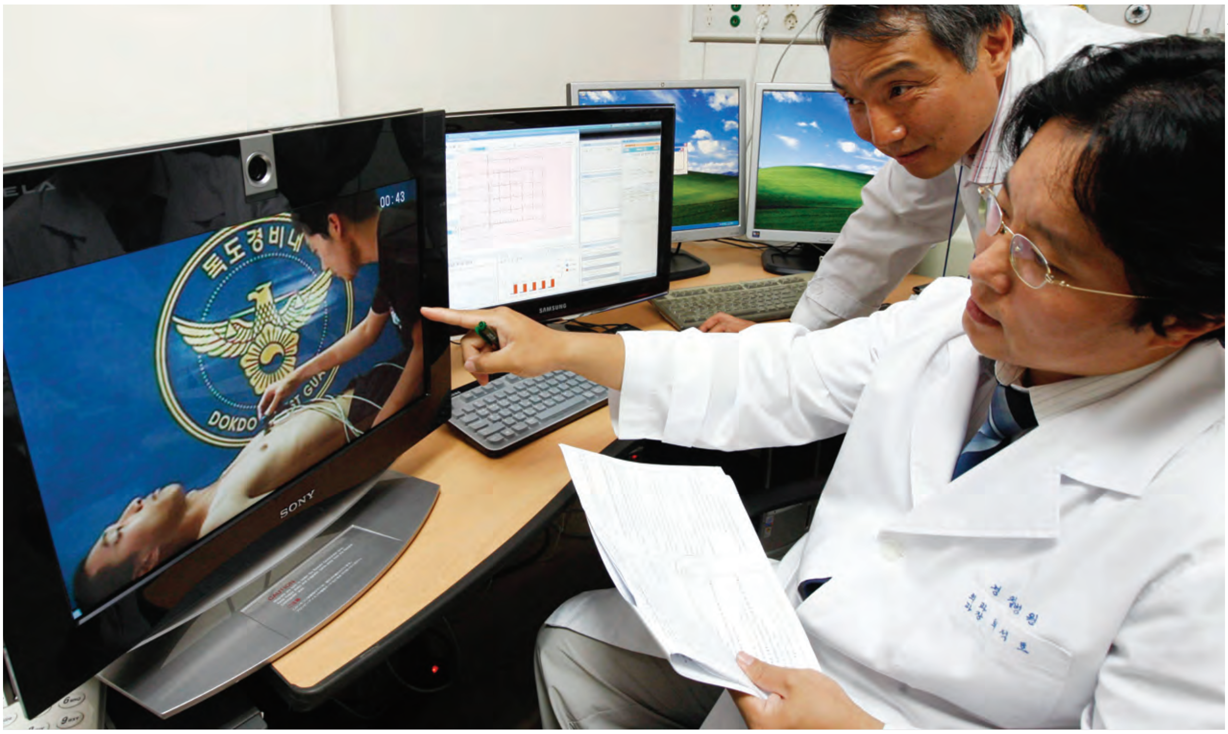


EPA연합



동아DB

▲▲김연아는 아이스링크 밖 생활을 싸이월드를 이용해 소통하고 있다.
▲인터넷 TV 사업자가 공급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IPTV가 최근 미디어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동아DB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의료 등 다른 서비스 분야와 접목하는 융합 서비스를 추진한다. 원격의료시장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구축한 콘텐츠 제공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더 큰 화면에서 인터넷, 동영상과 전자책, 기타 문서 작업까지 가능한 다목적 미디어로 벌써부터 영화, 서적, 신문 등 기존 미디어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여러 미디어가 하나로 융합되는 이른바 '미디어 컨버전스'와 맥을 같이한다. SBSi 박종민 미디어기획팀장은 저서 〈미디어 2.0,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가능성〉에서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상과 데이터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및 플랫폼으로 확대돼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팀장은 방송을 보면서 인터넷 사이트의 깊이를 느낄 수 있고, 방송을 보면서 신문 속보 기사를 읽을 수 있으며, 상거래와 방송 시청이 가능한 식의 융합 모델이 미디어의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미디어 컨버전스가 새로운 미디어 모델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수석연구원은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 컨버전스 측면에서 살펴본 글로벌통신사업자(Telco)의 대응 현황과 미래 과제'라는 연구 리포트에서 개방형 IPTV 등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미디어'를 넘어 소비자와 콘텐츠, 광고주 및 광고 시장, 정보기술(IT) 자원 사이의 중간 매개체로 개인 맞춤형 융합 서비스가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미디어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미디어 생태계에 커다란 변혁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시도될 예정이다.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요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비를 제대로 뿌려줘야 할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4월8일 미디어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 산업분야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요금 부담 경감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골자로 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무선 인터넷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요금 부담 경감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가 그 골자. 스마트폰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금융결제 방식을 자율화하고, 악성 댓글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본인 확인 제도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원격의료시장 확대 및 모바일 오피스 등의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이미 지난 1월 민관합동 추진협의회가 구성됐고, 여기에서 개선 과제를 찾아내 올해 하반기 안에 파급



조영철 기자

인터넷 공간을 실시간으로 담아내는 스마트폰의 저변 확대, 모바일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생태계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효과가 큰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데이터 사용량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량을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금제도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하나의 데이터 요금 상품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 기기의 숫자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통신망을 임차해 이동통신업을 하는 사업자(MVNO)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해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업자가 사업자별로 개설한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통합 앱스토어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 맞춤형 융합 서비스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미디어'로

무선 분야의 서비스 인프라 투자도 시행된다.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전화보다 25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용량 응용 서비스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 먼저 무선 랜,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지역이 확대된다. 국민들이 저렴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랜 이용 지역을 올해 안으로 2배 확대(2만7천 개소)한다. 와이브로 역시 올해 5대 광역시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전국 84개 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2011년까지 4천7백억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 미디어 서비스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고품격 실감 방송 서비스, 현재 인터넷 속도보다 1백 배 빠르면서 여러 종류의 무선망이 함께 연동되는 미래 인터넷 및 모바일 통합망 서비스, 모바일·PC·TV를 바꿔가며 한 종류의 드라마, 교육 콘텐츠를 연속으로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 스크린 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다.

대형 미디어 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 업체 간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올해 9월엔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을 구체화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모바일 광고, 스마트폰 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통신 주요 3사(SK, KT, LGT)는 공동으로 KIF(Korea IT Fund)를 설립해 올해 말까지 3천7백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SK 연간 5천명, KT 연간 1천명)도 실시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추진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 무선 인터넷 활성화
- 방송통신 서비스의 타 분야 접목 시범사업 추진
- 데이터 잔여량 이월 사용, 통합요금제 도입
- 무선 재판매 사업자(MVNO) 신규 진입
-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연계한 통합 앱스토어 추진

■ 무선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 무선 랜 이용 지역 2배 확대
- 와이브로 서비스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
- 미래 유망 서비스 R&D 추진(고품격 실감방송 서비스, 인터넷·모바일 통합망 서비스, 스마트스크린 서비스)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

콘텐츠 산업으로 청년취업난 푼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신성장 동력원으로 떠올라

만화나 게임 등 한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한 일본의 ‘오타쿠’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디지털 덕후’들은 잠재적인 ‘신성장 동력원’이다. ‘디지털 덕후’들을 산업 역군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일러스트 · 이우정

'오타쿠'란 마니아 이상으로 한 분야에 심취한 사람을 일컫는 일본말이다. '덕후'란 오타쿠를 우리말로 변용한 '오덕후'에서 뒷말만 차용해 '무엇 무엇의 마니아'란 의미로 사용되는 신세대 조어.

우리나라에 '디지털 덕후'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이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디지털 기기를 접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Digital Native Generation)'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일례로 아이폰은 한국 상륙 1백23일 만에 50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아이폰 50만 대를 돌파한 나라가 됐다.

더구나 스마트폰과 3D 영화가 우리 사회의 새 화두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덕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정보기술(IT)과 디지털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는 청년실업(2009년 8.1퍼센트)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실마리가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대학생들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일자리가 없어서(19.3퍼센트)'라기보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75.6퍼센트)'로 꼽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와 〈월간 리쿠르트〉가 지난 3월 대학 4학년생과 신입 구직자 1천3백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IT·통신(21.1퍼센트)이었다.

3D 산업으로 청년 일자리 8만 개 창출

정부는 청년층의 '디지털 덕후' 코드에 맞춰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인 미스매칭 해결에 나서고 있다. 4월 8일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콘텐츠·미디어·3D 산업 발전전략' 중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창출 계획이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이들 산업은 향후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콘텐츠를 대표하는 세계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지난해 42억 달러에서 2013년 2백9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시장조사 업체 가트너·201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1억7천8백만 대에서 2013년 6억 대로 예상된다(삼성경제연구소·2010년). 전 산업에 3D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3D 산업 시장은 올해 1백47억 달러에서 2015년 2천1백67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콘텐츠·미디어·3D 산업은 고도의 지식, 창의력과 기술의 활용이 중시되는 '인적 자원 집약형' 산업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은 20, 30대 청년층이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지식·노동집약형 고용구조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다. 국내 2위의 온라인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는 전체 직원(약 2천명) 중 20, 30대가 97퍼센트를 차지한다.

> **콘텐츠·미디어·3D 산업에 대한 노력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4년까지 약 8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콘텐츠 산업은 약 3만명 △미디어 산업은 약 1만명 △3D 산업은 약 4만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높이고 있다. 현재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은 애플리케이션, 캐릭터 개발 등 분야에 3만7천4백여 개가 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을 5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안에 지원센터를 두고 아이디어 발굴,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 등록, 마케팅 등 사업화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프로젝트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거래를 위한 온라인 오픈마켓을 구축하며 전국 13개 지역문화산업진흥원에 '콘텐츠 벤처 스튜디오'를 설치해 1인 창조기업 육성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천만원을 지원받은 B 씨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스마트폰에 탑재 운영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애플사의 앱스토어에서 3개월간 2천5백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정부는 투자모금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자본금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1인 창조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미디어·3D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4년까지 약 8만명(연평균 약 1만6천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약 6조5천억원이 투자돼 약 3만명 △미디어 산업은 약 4조7천억원이 투자돼 약 1만명 △3D 산업은 약 15조원 매출을 통해 약 4만명의 고용이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장경근 사무관은 "콘텐츠와 미디어 산업은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도 구직만 고민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맞아 창업과 '창직'으로 발상을 전환한다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3D 입체방송 생존전략 정책 토론회

"장비 국산화·수익모델 개발이 과제"

'21세기 영상혁명'이라 불리는 3D 입체방송. 미래 방송산업의 新성장동력이라는 3D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다. 3D TV 방송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방송, 관련 업체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회를 열었다.



4월 9일 허원제 의원 주관으로 '3D 입체방송 생존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3D 산업 육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은 우리나라 3D 방송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3D 입체방송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3D 산업의 승패는 디스플레이기기와 같은 하드웨어 보급, 그리고 이용자의 욕구와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에 달렸다"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과 정책의 체계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다각도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는 3D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요 발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우리나라 3D 입체영상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콘텐츠 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 3D 전문업체는 10여 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 시장 진출에 한계를 갖고 있다. 방송사의 경우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설비를 갖추거나 현재 제작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 3D 전용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가 올해 상반기 중 설비를 갖춘다고 들었다. 앞으로 3D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제작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교육이 필요하다.

문성길(한국HD방송 대표) | 지난해 7월부터 스카이 3D 채널을 운영하면서 절감했지만 만족스런 3D 콘텐츠를 생산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장비 문제가 심각하다. 3D 촬영을 하려면 렌즈 2개로 양안(兩眼) 시차의 원리를 이용하는 '리그(Rig)' 장비가 필요한데 대부분 미국 3D 업체로부터 고가에 수입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양질의 3D 콘텐츠를 생산하려면 3D 제작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상길(KBS 연구소장) | 3D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고려하면 3D 방송기술의 핵심인 리그 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현재 3D 핵심 카메라 기술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오는 10월 3D TV 시험방송을 시작하지만 향후 실제 방송에 적용되기까지는 3D 지상파 방송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선결돼야 한다. 3D 방송은 일반 2D 방송과 달리 시청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봐야 하는데 가정이나 외부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보는 시청자들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의 경우 비용 대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오용수(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진흥과장) |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3D 방송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 3D 기술과 증강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다. 3D 콘텐츠를 사용자 측면에서 널리 알리기 위해 3D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등의 국산화를 시도하면 사용자 누구나 3D 제작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승종(LG전자 DTV 연구소 상무) | 이제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따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 애플의 동향을 보라.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독특한 하드웨어에 앱스토어라는 콘텐츠를 얻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3D TV 역시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떤 콘텐츠가 결합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정민(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3D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각 부처 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정부 부처가 3D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전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출현 시 부처 간 갈등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3D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로드맵을 세워 잘 진행하고, 부처 간 갈등을 줄여 체계적인 전략 이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승현(광운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교수) | 아직 우리나라 3D 기술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도적 기반 체계가 단일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3개 부처가 3D 산업과 관련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한 것처럼 3D 산업이 국가를 이끌어나갈 '에너지'란 점을 인지하고 정부 지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윤양수(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 |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지난 4월 8일 마련된 제4차 고용전략회의에 많이 반영됐다. 부처 간 갈등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협의체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3D 콘텐츠 발전 전략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허원제 의원은 "3D 산업의 승패는 하드웨어 보급과 창조적인 콘텐츠에 달렸다"고 말했다.

> "이제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따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애플은 하드웨어에 앱스토어라는 콘텐츠를 얻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3D TV 역시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떤 콘텐츠가 결합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전에는 콘텐츠가 하드웨어의 종속물에 불과했지만 이젠 콘텐츠를 통해 하드웨어가 발전하는 양상이므로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루퍼트 머독은 "콘텐츠는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했다. 모든 새로운 플랫폼 기술은 콘텐츠 없이는 텅 빈 용기에 불과하다.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정부 및 민간업체의 협력을 도모해 '2D 한류'로 얻은 세계적인 명성을 '3D 한류'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열 것이다.

문성길(한국HD방송 대표) | 올해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3D TV 방송이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위성방송들이 3D 중계방송을 개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 3D TV 수상기는 한일전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3D 콘텐츠가 적절히 구축되면 우리가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다. 2000년에 시작된 한류 열풍에서 볼 수 있듯 3D 콘텐츠의 1차 공략시장은 아시아다. 한류 아이돌 스타 콘서트와 같은 3D 콘텐츠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국산 3D TV로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3D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B4E·WCC·IUCN…

‘세계 녹색뉴딜’ 그 중심에 서다

정부가 미래 국가비전으로 삼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녹색뉴딜 정책의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B4E, WCC 등 굵직굵직한 환경 관련 국제회의가 연달아 열리게 됐다. 에너지 자원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성장을 꾀하며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온 한국은 이제 ‘환경선진국’이라는 돛을 달 날이 머지않았다.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나라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죽어가는 환경 살리기에 머물지 않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자원 효율화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진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 잔반 줄이기, 친환경 제품 쓰기 같은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가정과 직장, 학교로 확산됐다. 덕분에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은 매출 증가로, 국민의 녹색소비는 친환경 제품 생산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국민이 실천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이 빚어낸 성과다. 특히 비(非)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목적을 둔 ‘그린스타트 운동’,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가 먼저(Me First) 운동’, 잔반을 줄이기 위한 ‘빈 그릇 희망운동’은 국민 개개인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녹색생활 실천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폐자원과 바이오가스도 유용한 에너지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2백24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악취에 시달리던 수도권 매립지도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조성해 친환경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한 환경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아울러 우리의 환경산업 현장을 찾아 노하우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방문도 계속되고 있다.

B4E·WCC 등 유치로 환경선진국 도약 발판

녹색성장 정책이 이처럼 기후변화 요인과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되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범국가로, 세계 녹색뉴딜을 이끄는 중심국가로 위상이 높아진 것.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환경 관련 국제행사를 줄줄이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세계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가 이달에 서울에서 열리고, 2012년에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개최된다. 환경 분야의



한국 주재 러시아 공무원 자녀들이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 있는 양묘온실에서 폐자원 재생 연료로 키운 허브를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최대 국제회의인 WCC의 규모는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람사르 총회의 4배 이상이다.

WCC는 우리나라와 제주도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제주도 유치가 확정된 뒤 전문가 초청 워크숍에 이어 WCC 준비 워크숍을 열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제주선언문 채택 및 제주환경리더스포럼 창설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에 열리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노리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1백94개국이 참가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11월 말~12월 초에 약 2주간 개최된다. 올림픽처럼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라 5개 유엔 지역그룹을 돌며 열리는데, 2012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될 차례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12년 총회의 유치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는 현재 카타르와 개최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개최 희망국이 두 나라 이상일 경우, 될 수 있으면 투표를 지양하고 해당 지역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2012년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기 위해 모든 외교채널을 이용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성장 정책이 이처럼 기후변화 요인과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활용되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달라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범국가로, 세계 녹색뉴딜을 이끄는 중심국가로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갈라진 기후변화협상 구도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기후체제 개막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정 기본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녹색 지구’ 위한 세계 경제 리더의 한마당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 서울 개최 〈B4E〉

세계 경제 리더들이 지구환경 개선을 위해 모이는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가 4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환경회의여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이다. 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천만명의 자연보호주의자들이 모여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인 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해마다 이날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백84개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이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올해 제4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 · Business for Environment Global Summit)’가 4월 21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B4E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세계 경제계 환경회의. 제1, 2차 회의는 싱가포르, 제3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으며 이번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B4E의 한국 개최는 UNEP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가 B4E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평가함에 따라 성사됐다. UNEP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정치 · 경제



B4E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을 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B4E)'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참석자들은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회담을 통해 생물다양성(Biodiversity), 기후변화,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 재생가능에너지, 녹색성장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세계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참석자들은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회담을 통해 생물다양성(Biodiversity), 기후변화, 자원 및 에너지 효율성, 재생가능에너지, 녹색성장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환경부와 UNEP은 이번 회의를 '환경오염물질 배출 제로', '페이퍼 제로'의 친환경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장을 종이 없는 공간으로 꾸미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자전거를 교통편으로 제공하며, 재생가능한 재료로 만든 사무용품을 비치하는 등 회의 진행에 친환경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저녁에는 UNEP이 매년 지구환경 보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지구환경대상(COE·Champions of the Earth)'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이 있다. 2005년부터 시상한 지구환경대상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 등 세계 환경리더 35명이 받았다. 올해 지구환경대상은 정책, 과학, 경영, 행동의 4개 부문과 함께 2010년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를 기념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경영 특별부문까지 총 5개 부문에 수여될 예정이다.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게오르그 켈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사무총장은 "B4E 2010은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촉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더욱 뜻깊은 이유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의 참가 규모가 35개국,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는 것도 이번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 바라트 자그데오 가이아나 대통령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4월 22일 자국의 저탄소 성장 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모하메드 나시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통령, 장관 등 10여 명과 함께 바닷속에서 수중 각료회의를 개최해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회의는 예행연습 후 전원이 잠수복을 입고 화이트보드와 방수펜을 사용해 결의안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몰 위기에 처한 몰디브의 대통령으로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경고한 것이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 다양한 전문가 연설

영화 〈아바타〉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도 이번 회의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바타〉가 보여준 친환경성을 높이 평가받아 B4E의 연사로 초청된 그는 4월 22일 CNN 앵커 애나 코렌이 진행하는 토론에 직접 참석할 수 없어 영상으로 생물다양성과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LG전자, 클라란스, 코카콜라, 다우케미컬, 히타치, 맥킨지, 퓨마, 지멘스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 CEO와 최고 경영진이 참석한다.

동아DB



로이터



REX



4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B4E 2010에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왼쪽부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리더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전한다.

리처드 브랜슨은 선천적 난독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친구와 함께 우편 통신으로 음반 할인 판매를 시작, 훗날 세계 전역에 2백여 개의 회사를 거느린 버진그룹의 회장이 됐다. 세 차례나 목숨을 걸고 열기구 세계일주에 도전했으며 버진 콜라를 홍보하기 위해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탱크를 타고 들어가 코카콜라 간판에 포탄을 쏘는 퍼포먼스를 감행한 일화로 유명하다. 열악한 아프리카에 건강진료소를 보급하고 창업학교를 세우는 등 지속적인 자선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그는 4월 23일 리더십의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 여성 리더들도 다수 참가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의 우먼파워도 실감할 수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 '스텝(ST-EP ·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빈곤퇴치)' 재단의 도영심 이사는 4월 22일 지속가능한 관광을 주제로 열리는 실무그룹의 세션별 회의 의장을 맡았다. 이어 23일에는 오찬 프리젠테이션의 발표자로 나선다. 그의 딸인 엘레아나 리 〈CNN〉 아시아태평양본부장은 'CNN과 함께하는 지구환경대상 수상자와 젊은이들 간의 대화'라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2010년 지구환경대상 수상자와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하며 경영, 경제, 환경 전공 대학생 2백여 명이 참가한다.

저탄소 사회를 위해 일하는 아시아 여성 리더들도 만날 수 있다. 중국에서 최초로 풍력 보고서를 발표한 유지에 박사, 일본 환경성에서 추진하는 저탄소정책 연구원인 미치요 모리사와 박사 등이 그들.

제임스 립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사무총장과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환경운동가이자 200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케냐 출신의 왕가리 마타이 씨 등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영상 메시지로 회의 참석을 대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과학산업연구개발위원회(CSIR)의 에드워드 아옌수 대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유럽연합(EU) 고문인 마거릿 배티 씨, 오피스디포의 찰리 브라운 회장, 세계경제포럼의 찰리 에머슨 부대표 등 80여 명이 발표자로 연단에 선다.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녹색경제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장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시장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둔 창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려는 기업의 당면 과제는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4E 2010은 이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장려하는 대화의 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시청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회의 연사들에게 의견이나 질문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다. 〈CNN〉은 '지구환경대상 수상자와 젊은이들 간의 대화' 등 B4E의 일부 프로그램을 녹화해 세계에 방송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용진 해외협력담당관은 "국내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는 B4E 2010은 안으로는 녹색성장 비전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을 전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B4E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4.21 수 사전 행사

12:30~13:00	등록
13:00~17:00	사전 행사 프로그램 – B4E 국제 미디어 워크숍 – B4E/WWF NGO 회의 – UNEP 기후 자연 네트워크 회의
16:30~21:30	환영 리셉션 & 만찬

4.22 목 개막식, 지구환경대상 시상 등

07:30~08:55	참가 등록
09:00~09:50	〈개막식〉 • 개회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영상) • 기조연설 : 이명박 대통령 • 개막사 :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게오르그 켈 유엔 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제임스 립 WWF 사무총장
09:50~10:50	〈개회 전체토론〉 • 주제 : 글로벌 녹색 경제를 위한 성장동력 • 사회 :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 토론 : 바버라 쿡스 지멘스 AG 이사 및 최고 환경책임자, 조안 엘비라 퀘사다 멕시코 환경자원부 장관 등
10:50~11:00	〈리더십의 전망〉 • 발표 : 바라트 자그데오 가이아나 대통령
11:00~11:10	〈리더십의 전망〉 • 발표 : 남용 LG전자 부회장
11:10~11:40	휴식 및 녹색성장 전시회 관람
11:40~12:20	〈패널 토론〉 • 주제 : 우리의 선택 |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 발표 :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홀로그램)
12:20~12:30	〈리더십의 전망〉 • 발표 :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
12:30~13:40	오찬
13:40~13:50	오후 개회사 : 이만의 환경부 장관
13:50~14:00	〈리더십의 전망〉 • 발표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4:00~14:50	〈패널 토론〉 • 주제 : 녹색 사업 | 지구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 발표 : 아론 크래머 '사회 책임을 위한 비즈니스' 대표 • 토론 : 찰리 브라운 오피스디포 회장, 요헨 자이츠 푸마 AG 회장, 롤프 스탱글 SIG 콤비블록 회장 등
14:50~15:50	〈실무그룹 세션〉 1 획기적 소비자 변화 : 녹색 티핑 포인트를 찾아서 2 기후변화가 식량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3 지속가능 관광 : 변화를 유도하는 파트너십 4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긍정적 기후문제 해결 방안 5 지속가능 조달 및 녹색 공급망 확대 6 차세대 그리드 구축
15:50~16:20	휴식 및 녹색성장 전시회 관람
16:20~17:50	〈패널 토론〉 | CNN 방송 • 주제 : 저탄소 문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 • 사회 : 애나 코렌 CNN 앵커 • 토론 : 제임스 캐머런 감독(영상), 폴 불르크 네슬레 S.A 회장,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 요헨 자이츠 푸마 AG 회장 등
17:50	폐회
18:30	〈지구환경대상 시상 및 만찬〉 UNEP 지구환경대상 칵테일 리셉션, UNEP 지구환경대상 시상식 및 갈라 디너

4.23 금 패널 토론 및 실무그룹 세션 등

07:45~08:45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찬회 B4E 라운드테이블 조찬회
09:00~09:10	개회사 :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09:10~09:20	〈기조 발표(영상 프리젠테이션)〉 • 주제 : 친환경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 발표 : 파반 서크흐데이 경제학자
09:20~09:35	〈기조 발표〉 • 주제 : 자연에 의한 열망 /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 발표: 군터 파울리 ZERI(Zero Emissions Research & Initiative) 창립자
09:35~10:20	〈패널 토론〉 • 주제 : 녹색기업 운영과 신흥국가의 쇄신 • 사회 : 실비 레멧 UNEP 기술산업경제국장 • 토론 : 존 엘킹턴 볼란스 벤처 & 서스테인어빌러티 창립자, 창후아 우 그레이터 차이나 이사 등
10:30~13:00	〈실무그룹 세션〉 1 기업혁신 의장 : 김 카스텐슨 WWF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책임자 2 정보통신기술과 녹색 해결책 의장 : 론 니콜 보스턴 컨설팅그룹 책임자 3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 저탄소 스마트 도시 개발 및 시행 의장 : 아랍 호발라 UNEP 기술산업경제국 지속가능소비생산과장 4 금융과 투자 의장 : 아비드 카르말리 메릴린치 경영이사 5 에너지 |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과 가속화 의장 : 도미니크 워그레이 세계경제포럼 환경 이니셔티브 책임자 6 수자원 |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혁신과 파트너십 의장 : 가빈 파워 유엔 글로벌콤팩트 부국장
11:30~12:30	〈UNEP 지구환경대상 수상자와 젊은이들 간의 대화〉 • 의장 : 엘레아나 리 CNN 아시아태평양본부장 • 패널 :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2010 지구환경대상 수상자
13:00~14:10	오찬
14:10~15:10	〈패널 토론〉 • 주제 :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연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 • 의장 : 브라이언 월시 타임지 편집장 • 패널 : 아메드 드조글라프 CBD협약 사무총장, 아쇼크 코호슬라 국립자연보전연맹 로마클럽 총재, 아비드 카르말리 미국 메릴린치 탄소시장 글로벌 책임자 등
15:10~15:20	〈리더십의 전망〉 • 발표 : 팬 갱 이리그룹 대표
15:20~16:10	실무그룹 세션 결과 보고
16:10~16:30	〈리더십의 전망〉 • 발표 :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16:30~16:40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 전망〉 • 발표 : 조안 엘비라 퀘사다 멕시코 환경자원부 장관
16:40~17:00	〈B4E 2010 결과보고 및 폐회사〉 • 발표 : 아킴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제임스 립 WWF 사무총장 등

“청계천-4대강 이어지는 녹색성장 주목”

해외언론 “한국이 선도국가” 집중 조명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 〈진카나〉, 〈글로벌 아시아〉 등 권위 있는 매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고를 연이어 싣고 있다. 외신에서도 한국의 녹색성장을 깊이 있게 분석한 보도들이 잇따랐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녹색성장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발간된 〈진카나(Gincana)〉지에 한국의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렸다. 기고문 게재는 아흐메드 조글라프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종 멸종위기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1백90여 개국이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환경협약. 〈진카나〉는 환경과 개발 전반에 관한 주요 국제회의 및 전문가에게 배포되는 수준 높은 정기 간행물로 CBD 사무국에서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 지구-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및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적극 설명했다.

4대강살리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엄청난 수몰지구가 발생하는 댐과는 달리 강줄기를 이용해 약 13억 톤의 물을 저장함으로써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는 대단히 독창적인 접근”이며 “강의 기능 회복을 통해 생태계의 건전성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생태



쓰레기처리장에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난지도 하늘공원.

동아DB

> **미국 공영방송 〈PBS〉는 '디스 이즈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집중 조명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청계천에 대해 "디자인, 공학,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주 놀랍고도 주목할 만한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보전의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발간된 국제적 영문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에도 '패러다임의 전환–글로벌 녹색성장으로의 길'을 기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녹색성장은 산업과 기술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사회, 문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패러다임의 전환에 녹색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매체에서 잇따라 대통령 기고를 요청했을 만큼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은 유용하고 모범적인 사례이며, 한국은 국제사회가 따라가야 할 녹색성장 선도국가"라고 평가했다.

"가장 야심 찬 녹색투자 국가"

해외 언론도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자주 소개해왔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지난해 10월 31일 '디스 이즈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쓰레기 처리장에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난지도 하늘공원 등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데니스 홀리는 청계천에 대해 "디자인, 공학,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주 놀랍고도 주목할 만한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퍼센트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발표했을 때도 외신들은 앞다퉈 비중 있게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11월 18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야심 찬 녹색투자 국가"라고 평했다.

오스트리아의 〈비르트샤프츠블라트(Wirtschaftsblatt)〉지는 지난해 11월 13일자에서 "한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를 환경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가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7월 17일자에서 4면과 7면에 걸친 특집기사를 통해 청계천 복원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환경친화적 역할을 평가하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싣기도 했다. G

글 · 최호열(동아일보 출판국 전략기획팀 기자)

대한민국 녹색기술, 세계를 돕는다

알제리 · 베트남 등에 상하수도 기술 · 정책 전수

지난 1월 23일 알제리의 수질 개선을 돕기 위한 한 · 알제리 기술협력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물 처리 기술을 이용해 알제리 엘하라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기술자를 알제리에 파견하고, 알제리 관계자를 교육하는 등 알제리의 물 문제 해결을 적극 돕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이 이처럼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 배우고 있다.

한국수자원에서는 1997년부터 댐, 상하수도 분야 국제 연수프로그램인 'K-water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르완다, 케냐, 페루 등 60여 개국 관계자 1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도 2008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등 개도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환경기술전문교육과정(ISCET)'을 개설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상하수도 등) 기술과 정책을 전해주고 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세워주는 사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2007년 베트남, 2008년 인도네시아, 2009년 캄보디아와 아제르바이잔 등에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짜줬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과 탄자니아의 상하수도와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을 세워줄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히 마스터플랜 짜주기에 그치지 않고 후속사업까지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2008년 베트남 동나이성 고형폐기물 처리 관리 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고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유상 원조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베트남 롱안성 탄안시와 티엔지앙성 미토시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유상원조하고, 유해폐기물 관리 전자인계시스템 개발을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르위가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캄보디아 시엠립 폐기물매립장 건설사업도 무상원조하기로 했다. 아제르바이잔 페르샤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유상원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기술을 세계에 알릴 뿐 아니라 국내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알제리 수자원부를 방문해 양국의 기술협력을 다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녹색 한국 'Me First'

4월 19~25일 기후변화주간 다양한 행사 이어져



동아DB

지난해 기후변화주간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형 지구모형 사우나에서 환경변화에 민감한 양서류를 대신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있다.

제2회 기후변화주간 행사가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펼쳐진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녹색생활을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하자는 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과 올해 1월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e First' 정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녹색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사회 각 분야별로 다채롭게 개최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전국적 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기후변화주간 주요 행사

4.19 월 함께해요! 에코마음, 에코맘

시간·장소 |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 (사)에코맘코리아, 환경부, 여성가족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주요 내용 | 엄마의 마음으로 지구와 아이를 지키는 에코맘 약속 및 명사들과의 토크쇼 진행

4.20 화 탄소제로도시 선언식

시간·장소 | 15:00~17:00, 경북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주최·주관 |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
주요 내용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부응해 세계적 탄소제로도시 비전 선언

4.21 수 '쿨맵시' 코디 제안 패션쇼

시간·장소 | 12:00~13:00,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1층 야외무대
주최·주관 | 환경부, 롯데백화점
주요 내용 | 직장·여가생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름철 기후 적응형 복장 '쿨맵시' 코디 제안 패션쇼

4.22 목 기후변화 정책 워크숍

시간·장소 | 09:00~18:00, 서울 대치동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주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요 내용 |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등 연구 결과와 분야별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평가 결과 소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 등

뜨거운 지구에 쉼표를 선물하다 – 전국 한 등 끄기

시간·장소 | 20:00~20:10(10분간), 전국
주최·주관 | 전 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업계, 전 국민
주요 내용 | 전국 주요 상징물 및 일반 가정까지 모든 국민이 10분간 동시에 조명 끄기(가정은 사용하지 않는 한 등 끄기 권장)

4.23 금 녹색소비 오프닝 포럼 및 녹색매장 시범운영 MOU 체결

시간·장소 | 13:30, 국회 소회의실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윤선 국회의원실
주요 내용 | 녹색소비제도 현황 및 녹색소비 활성화 공동 캠페인 관련 논의, 녹색매장 시범운영 참여매장 MOU 체결

4.24 토 '쿨맵시' 코디 제안 패션쇼

시간·장소 | 14:00~15:00, 대전 서구 갤러리아 타임월드
주최·주관 | 환경부, 대전 서구청, 갤러리아 타임월드
주요 내용 | 직장·여가생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름철 기후 적응형 복장 '쿨맵시' 코디 제안 패션쇼

그린스포츠 실천행사 – 그린 함성 캠페인

시간·장소 | 15:00~18:00,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최·주관 | 환경부, 전북 현대모터스(프로축구 구단)
주요 내용 | 프로축구 경기(전북 현대모터스 대 울산 현대) 중 관객과 함께하는 녹색응원 문화 캠페인 전개

4.25 일 녹색제품 일일판매 이벤트

시간·장소 | 15:00, 전국 주요 유통매장
주최·주관 | 녹색위,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성가족부, 전국 주요 유통매장
주요 내용 | 각 부처 장관 및 유명인사가 홈플러스, 이마트 등 전국 유통매장에서 저탄소·친환경 제품 일일판매 이벤트 실시



4대강 살리기
봄철 진미의 비애
제 49 화
금강
글·이연수 그림·이호
웅어
청어목 멸치과
학명: Coilia nasus
자기랑 이렇게 신혼여행 가니까 너무 좋다.
나두~
그냥 헤엄만 치면 심심하니까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응? 뭔데?
인간들 말에 이런 말이 있어. '가을 전어, 봄철 웅어'.
꺅!
봄에 우리 조상들이 신혼여행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들이 잡아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대.
헐!
요즘 사람들은 우릴 잡으면 살만 발라내서 고추장에 날로 버무려 먹어.
그럴 수가!
너무 끔찍해!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에 자연수로형 어도를 만들고 금강 수질도 개선한다더니….
우리 같은 물고기들을 꼬여내려는 작전 아냐?
어쩐지 '낚시할 수 있고 수영할 수 있는 4대강'이 목표라고 할 때부터 수상했어.
맛있게 태어난 게 죄지, 뭐.

‘올해의 장애인상’ 받은 전통자수 공예가 이정희

그녀의 손길 지나간 곳… 꽃이 피고 나비가 나네

매일 10시간씩 꼬박 30년을 매달렸다. 유혹하는 봄이 찾아와도 장인(匠人)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망울져 핀 꽃도, 살짝 돋아난 새순도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에 비할 데가 없었다. 형형색색 흩뿌려진 자수의 향연 속에서 두 다리가 불편한 전통자수 공예가 이정희 씨는 마음껏 날아다니고 있었다.

소녀는 걷고 싶었다. 그러나 세 살 무렵 찾아온 병마는 소녀의 다리를 앗아갔다. 소녀는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멍하니 창문 옆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사촌언니는 소녀가 열일곱 살 되던 해 생애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줬다. 고운 한복을 입고 하얀 학을 수놓는 자수공예 선생님 앞으로 데려간 것. 소녀에게 선생님은 선녀처럼 보였다. 그날로 소녀는 굳은 결심을 했다. 자신을 옭아맨 두 다리 대신 실과 바늘을 잡고 선녀 옷을 만들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서 자수를 놓지 않겠다고.

30년이 흘렀다. 2급 지체장애를 딛고 전통자수 공예가의 길에 들어선 이정희(48) 씨.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을 기념해 서울 한국예탁결제원 갤러리에서 전통자수 공예 전시회를 열고 있는 이 씨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3년에 걸쳐 힘들게 완성했다는 청룡백호도 병풍부터 20대에 처음 만든 도자기 병풍까지 그간 이 씨의 자수 인생이 화폭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런 날이 오기까지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돌부처처럼 한자리에 앉아 자수를 한다는 건 너무도 힘든 일. 이 씨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부여잡고 기어 다니면서 수를 놓았다. 더 나은 자수기법을 연마하기 위해 그는 부모 몰래 고향 전북 정읍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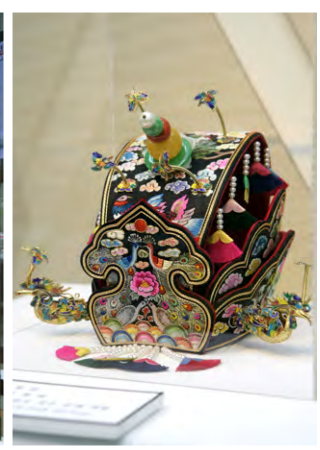
열일곱 살 때 처음 만난 전통자수… 그것은 운명

“한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서 자수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처음 자수를 배울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제가 손끝에서 한 땀 한 땀 꽃을 피워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디 꽃뿐이겠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제 손끝에서 그려지는데, 움직일 수 없어도 매일 자수 속에서 신선놀음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죠.”

스물여섯 살 때 자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중요무형문화재 80호 자수장 한상수(75) 선생 밑에서 2년간 가르침을 받았다. 용기를 내 명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2년 동안 배운 건 기능공이다. 5년 이상 되지 않으면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상수 선생의 단호함에 집으로 돌아가 홀로 수놓기 시작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혼자서 계속 자수를 하기로 결심했는지





이정희 씨는 30년간 수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도자기를 수놓은 병풍은 이 씨가 20대에 처음 만든 병풍(왼쪽)이며, ‘시집가는 날’이란 제목의 화관은 청와대에 기증한 것을 복원해서 만들었다.

모르겠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곁에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제 작품의 절반 이상은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집에서 공방을 차리고 자수공예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하루 10시간 쉬지 않고 자수에만 매달렸다. 어머니는 매일 실을 꼬아주고 그가 못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왔다. 어머니의 지극 정성 덕분에 그는 자색, 백색, 황색 등 5방색을 주조로 꼰사(꼬임이 있는 실)로 수를 놓는 '궁수(宮繡)' 기술을 치열하게 터득해갔다. 그의 손끝은 온통 울퉁불퉁한 굳은살로 뒤덮였지만, 정작 그를 힘들게 한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전통자수공예로 돈을 벌 수 없는 현실이었다.

"전통자수를 하려면 재료값이 만만치 않게 나가요. 고가의 실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아껴서 쓴다고 썼는데, 어느 날 보니 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힘들게 만든 활옷이며 방석 등을 내주고 재료와 맞바꿨어요. 제 자식처럼 고이 정성 들이며 만든 작품을 가게에 가져다주는데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작품 출전은 유명한 선생님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자수공예가들이 대회에 입상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1996년 전북 전통공예대전을 시작으로 제13회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상 등 40회 이상 공예작품전에 입상했다. 장애인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시집가는 날'이란 제목의 화관(花冠)은 2004년 청와대에 기증됐다. 이후 이 씨는 나사렛대 총장의 제안으로 전임교수 제의를 받아 학생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수공예를 가르치게 됐다.

"아직까지 전통자수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서는 제자들은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전통자수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알린다면 저처럼 자수를 배우겠다고 나서는 후학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저처럼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자수를 배운다면 성취감과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어 좋고, 일반인들에겐 자기 수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씨는 장애인들에게 "장애 때문에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 속 한국의 아름다움 꽃피우는 데 한몫할 것"

이 씨는 더 이상 자기만족을 위한 작품은 만들지 않는다. 세계 속 '한국의 아름다움'을 꽃피울 전통자수를 알리기 위해 거울, 화장대, 넥타이 등 몇몇 소품에도 도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오사카와 고베에서 연 전시회가 계기가 됐다.

"처음 일본에서 전시회를 연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미를 몰라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기우였어요. 많은 분이 찾아와서 '정말 아름답다'며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그의 전시에 감탄한 50대 일본인 여성은 올해 8월 연꽃축제 때 한국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옷에 수를 놓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이 씨는 "내 손으로 만든 자수공예 작품들로 우리 전통예술을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전통자수를 선보이고 싶다"고 했다.

"장애를 가졌다고 못할 것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꼭 맞는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수놓는 바느질은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됐을 때 '희망'이 됐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꽃눈 내리는 길 맨발로 걸어도 좋아라



명산 지리산과 청류 섬진강을 껴안은 경남 하동군은 흔히 '백사청송(白沙靑松)의 고장'이라 불린다. 높은 산과 깨끗한 강에다 하얀 모래밭과 푸른 솔숲을 품고 있어서 문자 그대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곳이다. 그런 하동 땅에 문화생태 탐방로 중 하나인 '토짓길'이 있다. 하동 토짓길은 고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군 악양면과 '십리벚꽃길'로 유명한 화개면 일대를 두루 거쳐간다.

그러니 토짓길의 전 구간을 섭렵하다 보면 〈토지〉 속의 배경과 인물을 찾아보는 문학기행, 섬진강 물길 따라가는 생태여행, 화개장터의 아스라한 옛 시절을 더듬어보는 추억여행, 화개동천의 야생차를 만나는 다도체험, 천년고찰 쌍계사를 찾는 답사여행 등의 다양한 체험과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하동 토짓길은 2개 코스로 나뉜다. 그중 제1코스는 박경리 선생이 26년에 걸쳐 집필한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이자 영남 유일의 슬로시티(치타슬로·Cittaslow)인 하동군 악양면 일대를 두루 거쳐간다. 화개천의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제2코스는 아름드리 벚나무가 늘어선 십리벚꽃길을 따라간다.



소설 〈토지〉 속 최참판댁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조부잣집.

섬진강 은빛 모래밭… 야영지로도 제격

하동 토짓길의 제1코스는 악양면 평사리 앞 섬진강변의 평사리공원에서 시작된다. 옛날부터 섬진강은 고운 모래가 하도 많아서 '다사강(多沙江)'이라 불리기도 했다. 특히 평사리의 섬진강변에는 바닷가 해수욕장처럼 넓은 모래밭이 형성돼 있다.

이 모래밭에 조성된 평사리공원(관리 악양청년회·055-883-5530)은 넓은 잔디밭과 주차장, 해학 넘치는 장승동산, 급수대와 화장실, 정자와 파고라, 시비와 노래비, 매점 등의 각



남도대교 주변의 길가에 만개한 벚꽃.

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휴식처로 안성맞춤이다. 섬진강변의 은빛 모래밭을 맨발로 걷는 재미도 이곳 아니면 맛보기 어렵다. 또한 하룻밤 묵으며 야영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평사리공원 옆 19번 국도에서는 평사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평사리는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신선봉과 형제봉에 등을 기대고 5백 리의 섬진강 물길이 앞으로 흐르는 마을이다. 한눈에 봐도 대하소설의 무대로는 딱 제격이다.

마을 앞에는 드넓은 악양 들녘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 한복판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장승처럼 서 있다. '부부 소나무' 또는 '쌍소나무'라 불리는 이 소나무는 〈토지〉의 주인공 서희와 길상처럼 늘 다정해 보인다. 게다가 봄에는 싱그러운 청보리밭과 연분홍 자운영밭, 가을에는 황금빛 들녘과 어우러져서 언제 봐도 아름답고 늠름하다

토짓길은 쌍소나무와 동정호를 지나 고소산성(사적 제151호)으로 이어진다.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인 동정호는 신라와 나당연합군을 만들어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름 붙였다고 한다. 고소산성은 뒤로 지리산의 험한 산줄기가 우뚝하고, 앞으로 섬진강 물길이 도도히 흐르는 곳에 위치한다. 올라가는 길이 다소 가파르지만, 크고 견고한 성벽에 일단 올라서면 악양면 일대와 섬진강 물길, 광양 백운산까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상쾌한 전망을 안겨준다.

고소산성 바로 아래에는 근래 들어 하동 제일의 명소로 떠오른 최참판댁(관광안내소·055-880-2950)이 있다. 〈토지〉의 최참판댁을 고스란히 재현해놓은 이 집은 14동의 전통 한옥으로 구성돼 있다. 집터도 호방하고 시원스럽다. 악양 들녘과 섬


화개 십리벚꽃길 주변으로 파릇파릇 고개 치켜든 보리밭.

진강 물길이 오롯하게 조망되는 평사리 상평마을의 언덕배기에 자리 잡았다. 주변에는 TV드라마 〈토지〉의 촬영장으로 활용된 초가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정감 넘치는 옛 시골 풍경을 오롯이 보여준다.

최참판댁을 지나온 토짓길은 악양면 소재지를 경유해 조부잣집까지 이어진다. 중국 무역을 통해 큰돈을 번 조재희라는 사람이 17년에 걸쳐 지었다는 이 집은 소설 〈토지〉 속 최참판댁의 실제 모델이라는 설도 있다. 조부잣집을 경유한 토짓길은 다시 취간림과 악양 들녘을 가로질러 악양루에 당도한다. 근래 복원된 악양루에서는 옛 멋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도 평사리 공원과 악양 들녘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전망만큼은 일품이다.

악양루에서 제1코스의 종점인 화개장터까지 약 9.5킬로미터 구간은 섬진강과 나란히 달리는 19번 국도를 따라간다. 굽이쳐 흐르는 섬진강 풍광은 시원스럽지만, 19번 국도를 따라가는 토짓길은 다소 지루하고 조심스럽다.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장터가 있지만, 조선의 7대 장터 중 하나였다는 하동 화개장터만큼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도 흔치 않다.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무대로도 알려진 화개장터는 지금도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자리해 숱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화개'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는 십리벚꽃길이다.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화개천 양쪽의 도로변에 늘어선 벚나무들은 매년 4월 초순쯤에 일제히 꽃부리를 펼치며 눈부시게 화사한 꽃터널을 형성한다. 해마다 이 무렵이면 벚꽃놀이에 나선 자동차와 사람이 뒤엉켜서 화개골 전체가 북새통을 이루곤 한다.

화개장터·십리벚꽃길에 화개골이 북새통

꽃 피는 화개골에는 차 향기도 그윽하다. 신라 흥덕왕 3년(82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화개골은 사방천지가 온통 차밭이다. 지금도 쌍계사 초입의 길가에는 차를 처음 재배했다는 시배지가 남아 있다. 화개골에서 수확한 차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궁궐에 진상될 만큼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왕의 차'로도 불린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조성된 보성차밭이나 제주도의 차밭과는 달리 화개골에는 약 1천3백 년의 세월 동안 산비탈의 바위틈에서 스스로 번식하고 성장한 야생 차나무가 적지



화개장터의 명소 중 하나인 대장간.

않다. 지금도 화개면 정금리의 도심다원(055-884-2261)에는 수령이 무려 천 년 이상 됐다는 차나무 고목이 성성하게 자라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화개골에서는 찻잎 수확이 한창일 즈음이면 '하동야생차문화축제'(올해는 5월 1~5일)가 열린다.

화개장터, 십리벚꽃길, 차 시배지 등을 거쳐온 하동 토짓길의 제2코스는 쌍계사를 경유해 불일폭포까지 이어진다. 신라 성덕왕 23년(724년)에 창건됐다는 쌍계사에는 진감선사 대공탑비(국보 제47호)를 비롯해 국가 지정 유물이 여럿 있다.

하지만 안목 좋은 이들이 더 눈여겨보는 것은 명부전 앞의 바위에 새겨진 고려시대의 마애불이다. 마치 감실(龕室)처럼 움푹 파인 바위벽에 도드라지게 양각(陽刻)된 불상이다. 소매 안으로 단정하게 끌어모은 두 손과 지그시 감은 눈, 그리고 소박한 인상은 부처가 아니라 참선 중인 스님을 연상케 한다.

쌍계사에서 지리산 십경 중 하나로 꼽히는 불일폭포까지의 거리는 왕복 5킬로미터쯤 된다. 오가는 데에 2시간~2시간 30분쯤 소요되는 길이지만, 탐방로 곳곳에 지리산의 다양한 자연 생태를 자세하게 설명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코스 정보

▶ **제1구간(소설 〈토지〉의 무대 따라 걷기)** | 18킬로미터, 6시간 남짓 소요. 섬진강 평사리공원→평사리 들판→동정호→고소산성→최참판댁→조부잣집→취간림→악양루→섬진강변→화개장터

▶ **제2구간(산과 강, 인간이 만든 '눈 속에 꽃이 핀 고장' 화개 길 걷기)** | 13킬로미터, 5시간 소요. 화개장터→십리벚꽃길→차 시배지→쌍계석문바위→쌍계사→불일폭포→국사암

전화 | 한국문인협회 하동지부(055-882-2675)

숙박

화개골의 시원한 물가에 자리 잡은 '쉬어 가는 누각'(055-884-0151)은 식사도 가능한 '굿스테이'(한국관광공사 선정) 업소다. 최참판댁이 있는 악양면에는 너른마당(055-884-3888), 평사리황토방(055-882-5554) 등의 민박집뿐이다.

그리고 악양과 하동 사이의 섬진강변에 위치한 미리내호텔(055-884-7292)은 객실 침대에 누워서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섬진강 조망이 탁월하다. 하동읍내에서는 고궁모텔(055-884-5300)이 시설 좋고 깔끔한 편이다.

맛집

화개면 쌍계사 입구의 단야식당(055-883-1667)은 담백하고 정갈한 산채정식과 사찰국수가 인상적인 맛집이다. 화개장터 주변에서는 동백식당(은어회, 참게탕 · 055-883-2439), 혜성식당(참게탕, 재첩정식 · 055-883-2140), 옛날팥죽(055-884-5484) 등을 맛집으로 꼽을 만하다. 미리내호텔 부근의 19번 국도변에 위치한 평산각(055-884-6262)과 하동송림 주차장에서 약 4백 미터쯤 떨어진 여여식당(055-884-0080)은 섬진강 명물인 재첩국을 잘하는 집으로 소문나 있다. 하동읍내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고전면 전도리의 팔팔민물장어구이집(055-884-6724)에서는 담백하고 고소한 민물장어구이를 맛볼 수 있다.

가는 길

▶ **승용차** | 남해고속국도 하동나들목(19번 국도 · 하동 방면)→하동 우회도로→악양 평사리삼거리(최참판댁 초입)→화개장터(1023번 지방도 · 우회전)→쌍계사 입구

▶ **대중교통** |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는 화개를 경유하는 하동행 시외버스가 매일 7회씩 출발한다.



Books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중간자’ 대한민국 미래 위한 제언



2020 대한민국, 다음 십 년을 상상하라!

조지프 나이, 스티븐 로치, 스티브 발머, 도미니크 바톤 외 26인 지음
이은주 옮김 / **랜덤하우스 · 1만5천원**

2010년 오늘, 대한민국을 되돌아본다면 이뤄낸 것이 많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올해는 아시아 최초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던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코리아 프리미엄’이란 라벨을 붙여가며 감격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10년을 내다볼 혜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 클라우스 슈와브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 겸 회장,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제프리 가튼 예일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등 대통령 직속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 30인은 지금보다 더 발전할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2020 대한민국, 다음 십 년을 상상하라!〉란 책을 펴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성장의 걸림돌로 ‘폐쇄성’을 지목했다. 루벤 바르디니안 트로이카 다이얼로그 회장 겸 CEO는 “2008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투자보고서’에서 한국은 ‘금융 국제화 지수’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한국경제의 부흥은 신흥 경제국가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프랑스의 경제·사회 비평가 기 소르망은 “한국의 무궁무진한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석사과정 이상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각 분야의 리더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높여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거나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지닌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도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리더들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했다.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정치·경제적으로 제한된 역할만 주어지고 이도 저도 아닌 위치에서 위기를 맞곤 했지만, 이젠 ‘중간자’적인 처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구와 아시아의 관계 등을 조정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추천사에서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 불안과 희망이 교차되는 이 ‘지혜의 서’는 화려한 축제의 파티복이다, 이 책은 ‘읽는 책’이 아니라 ‘입는 책’으로 다 같이 실천하고 체험해야 하는 지성의 의상”이라며 일독을 권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숨그네

헤르타 뮐러 지음 · **박경희** 옮김 / **문학동네 · 1만2천원**



200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타 뮐러의 최신작. 루마니아에서 소련 강제수용소로 이송된 열일곱 살 독일 소년의 삶을 그렸다. 루마니아 독재 치하에서 살다가 독일로 망명한 작가는 자신처럼 망명한 시인이자 실제 수용소 생존자인 오스카 파스티오르의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었다. 비인간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날카롭게 포착해냈다.

워킹푸어

NHK 스페셜 워킹푸어 취재팀 지음 · **김규태** 옮김
열음사 · 1만1천원



2006년 일본 〈NHK〉 스페셜 〈워킹푸어〉 1, 2편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란 부제를 단 이 책은 새로운 빈곤의 양상을 말해준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자리를 찾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삶의 조건은 더욱 나빠진다는 것, 바로 ‘워킹푸어(일하는 빈자)’ 사회의 출현이다. 우리나라 역시 88만원 세대 등장과 청년실업 등으로 워킹 푸어의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될 때가 왔다.

분홍주의보

엠마 마젠타 지음 · **김경주** 옮김 / **써네스트 · 1만원**



벙어리 소녀 발렌타인이 처음 사랑을 시작하면서 겪는 성장통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다. 소녀는 사랑에 빠지면서 몸에 분홍이 가물가물 물드는 아름다운 기분에 빠져든다. 소녀는 분홍주의보를 맞이하며 한층 더 성숙해진다. 2005년 미국 만화가협회에서 최고의 삽화상을 받은 작가 엠마 마젠타의 독창적인 그림에 2009년 김수영문학상을 받은 김경주 시인의 번역이 실려 따뜻한 감성과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글과 그림 · 최영순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한겨울에도 봄이 움트고
밤의 장막 뒤에선 새벽이 미소 짓는다.
– 칼릴 지브란

화창한 봄, 유쾌한 '발레' 나들이

발레 〈코펠리아〉

일시 4월 27일~5월 5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5일 오후 3시, 7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5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7-6181 www.sac.or.kr



1997년 시작된 국립발레단의 스테디셀러 공연 '해설이 있는 발레'가 2010년 탄생 15주년을 맞아 '전막 해설발레'로 업그레이드돼 관객을 찾는다. 안무가 제임스 전의 〈코펠리아〉는 그 서막을 여는 작품.

19세기 클래식 발레 걸작 중에 〈지젤〉이 비극을 대표한다면 〈코펠리아〉는 희극 발레의 대표작이다. 괴짜 과학자 코펠리우스가 만든 코펠리아라는 인형을 마을 사람들이 살아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코펠리아를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는 프란츠, 이를 질투하는 약혼녀 스와닐다 사이의 갖가지 에피소드가 재미있고 밝게 묘사된다.

제임스 전은 이번 무대에서 근엄한 발레가 아니라 유쾌한 웃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코믹한 클래식 발레를 버무려낸다. 발레리나들은 머리 위로 양손을 얹고 게다리 춤을 추는가 하면 때론 엉덩이를 마구 흔들며 웃음을 자아낸다.

특히 2막에서 닥터 코펠리우스의 실험실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형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가족발레의 모범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는 국내 발레계를 대표하는 김주원, 김지영 등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레리나들이 스와닐다 역으로 줄줄이 등장한다. 바로 김리회와 신승원, 박슬기가 그 주인공. 이들은 최근 열린 각종 국내외 발레 콩쿠르를 휩쓴 실력파로 이번 공연에서도 같은 스와닐다 역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연기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70여 개 작품을 안무한 제임스 전은 "이번 〈코렐리아〉는 현대적인 느낌과 클래식 발레가 적절히 섞인 '뉴클래식' 버전"이라며 "발레 공연에서도 웃음과 인간미가 넘치는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작품 해설은 지난해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신데렐라〉에서 왕자 역을 열연해 주목을 받았던 발레리노 이동훈이 맡았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설연주회 〈사랑방음악회〉

일시 4월 23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설 연주회로 매달 한 번씩 공연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손님상과 황병기 예술감독의 해박한 입담이 곁들여진다. 이달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아쟁 파트 단원들이 연주회를 마련한다. 바흐의 명곡 'G선상의 아리아'는 아쟁 중주, 뉴에이지 풍의 '열정'은 대아쟁과 피아노의 이중주로, 영화 〈디어 헌터〉의 주제곡 '카바티나(Cavatina)'는 소아쟁 독주로 선보인다.

연극 〈오장군의 발톱〉

일시 4월 25일까지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일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월요일 쉼)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1644-2003 www.mct.or.kr



극작가 박조열이 1974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6·25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복무한 작가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고 있다. 순박한 농촌 총각 오장군이 전쟁 영웅으로 희생되는 과정을 그린 이 연극은 명동국립극장(현 명동예술극장) 초연을 앞두고 공연불가 판정을 받는 아픔을 겪었지만 1988년 극단 미추에 의해 상연되며 그해 주요 연극상을 휩쓸었다.

“깨끗한 강에서 살고 싶어요”

한강을 청소하자 황복이 돌아왔습니다.

영산강의 은어도, 낙동강의 큰가시고기도

맑고 깨끗한 집이 필요합니다.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입니다.

강을 깨끗이 청소해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핵안보와 평화적 핵사용 선도하는 대한민국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2일 오후(현지시간) 회의장인 컨벤션센터에 도착,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2012년에 열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국으로 결정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